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교사
전문환경지도자 양성교육

활동 자료집 1

(약 1년간 활동 기록서를 첨부합니다)

모듬안내자교육 생태나들이 일정표입니다. [sinchasun, 2002-04-03,19]

4월 현장답사 16일(일) 산 - 홍릉 수목원 27일(일) 계곡 - 관악산
특강 20일(토) 유아교사 환경교육 워크샵 - 환경교육센터

5월 현장답사 6일(월) 개구리와 도롱뇽 관찰 + 만들기 - 의왕시 청계산
스터디 나들이와 들꽃

6월 현장답사 3일(월) 나무와 들꽃 + 만들기 - 의왕시 청계산 또는 북한산
특강 자전거로 둘러보는 여의도의 동,식물

7월 현장답사 8일(월) 물고기 + 만들기 - 양평 소입천
스터디 물고기와 갯벌

8월 현장답사 26일(월) 갯벌 + 만들기 - 대부도 남사리
스터디 터전에서의 생태나들이 1,2 - 모듬 안내자 선생님들이 준비 및 발표

9월 현장답사 16일(월)가을들꽃 + 만들기 - 충북 영동
스터디 터전에서의 생태나들이 3,4
특강 가을 들꽃과 열매

10월 현장답사 7일(월) 가을열매 + 만들기 - 인천 남동고 해양 생태공원 이외에
2회의 답사가 일요일에 진행 될 예정
스터디 터전에서의 생태나들이 5,6

11월 현장답사 4일(월) 겨울철새 + 만들기 -경안습지와 팔당댐
스터디 겨울산과 철새
특강 자연물로 놀이감 만들기

12월 현장답사 미정
스터디 생태적 감수성으로
특강 터전에서의 나들이 7,8

위 내용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수정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1~2회의 깜짝 특강 또는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 11월 중 류창희 선생님과 현장답사 일정안내 [sinchasun, 2002-04-03,4]

5월 - 6일(월) 개구리와 도롱뇽 관찰 + 만들기 - 의왕시 청계산

6월 - 3일(월) 나무와 들꽃 + 만들기 - 의왕시 청계산 또는 북한산

7월 - 8일(월) 물고기 + 만들기 - 양평 소입천

8월 - 26일(월) 갯벌 + 만들기 - 대부도 남사리

9월 - 16일(월) 가을들꽃 + 만들기 - 충북 영동

10월 - 7일(월) 가을열매 + 만들기 - 인천 남동고 해양 생태공원

11월 - 4일(월) 겨울 철새 + 만들기 - 경안습지와 8당땀

오전 10시 장소 집합

점심먹고(각자 준비해옴)

오후 3시 정리

20일 환경교육 보고입니다. [kil979, 2002-04-22,19]

장소 ;경북구역 환경운동 연합 환경교육센터 02)735-7000

시간;9시30-오후6시

참여한분;땀밭,딸기,둘리엄마,수박,시금치,풀피리,동산,달팽이,도깨비등 9명

일정;

- 1.오전은 세모둠으로 나눠 환경교육센터 앞마당에서 자라는 꽃과 나무를 보고, 환경교육센터 1층 생태 교육관체험,또 염색과 자연물 액자만들기를 했어요.
- 2.오후는 자리를 옮겨 한국 사회과학도서관에서 환경교육 사례를 나누고 여러모둠으로 나눠 환경교육 계획안을 만들어 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

환경교육센터 앞마당;환경운동 연합은 몇년전 사무실을 그자리에 새로 지으면서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태양광을 이용하는 건물로 다시 태어났대요.예쁜 통유리 건물인데 그 마당엔 큰 회화나무와 매미꽃,돌단풍,하늘 피발톱,할미꽃,수수꼬따리등의 우리꽃이 자라고 있어요.

생태 교육관;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겠어요.

숲의 천이과정,동물들과의 속도비교체험 기계도 있고 안내 선생님의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시간가는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비디오(맛있게 드세요)도 봤는데 아이들이 이걸보면 반찬을 안 남긴답니다. 예약을 하면 아이들도 관람 가능 합니다.

6-7세 이상이 재미있게 참여 할수 있지 않을까...

염색;치자와 황토염색중 택일

아시다시피 치자는 매염제 없이도 염색이 잘 되더라구요.

방법도 간단 해요.

40-50도의 물에 치자를 넣고 불려 건더기를 체에 거른후 천을 넣고 주무른후 찬물에 헹귀 냅니다..

황토 염색도 마찬가지로 매염제로 명반을 사용합니다.

매염제는 염색전 물에풀어 천을 한번 헹귀내고 염색하거나 염색후 헹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후엔 환경교육을 하고있는 어린이집원장님께 사례를 듣고 모둠별로 계획안을 짜 보고 발표를 했습니다.

평가;

공동육아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이 있어 다소 감이 다르기도 했어요.

특히 일반 어린이집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야 할때는 더 그러했지요.

어린이집간의 경쟁이 심한지라 뭔가 특색있는걸 찾던차에 환경교육을 생각했다

며 여러 환경에 관한 행사를 부모님과 함께 했더니 부모님들이 좋아하더라.. 등 의 이야기에 선 공동육아와 일반 어린이집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또한번 이제 우리공동육아만의 풍부한 교육사례들을 자료화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셨구요. 하지만 푸른 4월 환경교육센터 앞마당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할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관악산 모임보고 1탄 [kil979, 2002-04-23,29]

심상옥 선생님과 관악산 모임보고

날짜;4월 22일

장소 ;관악산 계곡일대

참가인원;감기몸살로 참여하지 못한 채송화 외 12분이 전원 참석 하셨습니다.(별님은 사정상 그만두십니다.)

내용;

관악산 계곡주변의 식물에 대해 걸으면서 이야기를 듣고계곡속에 있는 여러 생물들을 채집 관찰하고 놓아주었어요.

관악산 계곡주변에서 나눈 식물 이야기

-쇠뜨기(뽕밥)놀이;쇠뜨기가 뽕밥일땐 포자가 수십만개라 안꺼는 것이 자연에 대한 예의다.

-냉이방울놀이

-아까시나무 가시로 코뿔소놀이하기.

-진달래와 철쭉의 차이;철쭉보다 진달래가 먼저피고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꽃이 다 지면 잎이 핀다.만약 꽃과 잎이 함께 피어 있으면 철쭉이다. 철쭉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

-서양민들레와 우리민들레의 차이;꽃받침이 뒤집어져 있으면 서양민들레

-아까시나무;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시나무의 생명력은 그리 질기지 않다.

다른 나무에 비해 수령도 70년 정도구,씨앗 번식을 하지 못하고 뿌리로 발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옮겨심어주기 번식 경쟁력도 좋지 않다.

관악산계곡에서 나눈 생물이야기

-관찰용 생물 채집 방법;1.돌에 붙어있는 생물은 붓으로 채집한다.

2.되도록 손으로 만지는 것을 피한다.

3.관찰후엔 반드시 원래 있던자리에 되돌려 준다.(돌도 마찬가지..)

4.물고기는 아이들이 잡으려면 손가락 만한 것을 잡는다.

5.물고기를 관찰할때는 반드시 산소기포기가 설치된 어항등을 이용

6.돌은 생물의 서식처 이다.돌을 옮겨놓는건 집을 옮기는 것이다.

관악산 모임보고 2탄 [kil979, 2002-04-26,34]

관악산 강의 2탄.

아이들과 생물을 키울때

1. 되도록 관상종류는 키우지 않는다.

관상종류는 키우다가 되돌아갈 곳이 없다.

특히 청거북은 환경부 퇴치종으로 생명력이 강해 사람들이 키우다가 싫증이 나면 강이나 연못에 놓아주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잡아먹어 생태계의 혼란을 만든다.

2. 키우게되면 어느정도 키우다가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다.

예를 들면 개구리알을 부화시킨다면 어느정도(뒷다리가 생길때 까지) 키우고 아이들과 함께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까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질문과 대답

1.생태적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할수 있나요?

-인터넷을 활용하면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2.박물관과 현장의 교육적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면 식물의 광합성작용에 대한 설명은 현장에서 어렵지만 박물관에선 모형을 보고 설명하면 더욱 이해가 빠르니까 그럴땐 박물관이 낫고 대부분의 경우는 현장이 낫죠..

3.선생님의 메일 주소좀 알려주세요.

-ecoai @ freechal.com

-ecoai licos.co.kr

관악산 강의를 듣고

생태모듬의 방향을 잡는데 심상옥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선생님이 가신후 좀더 이야기를 했어요.

심상옥 선생님; 생태 모듬의 성격이 뭔가요?

코빨소; 우리안의 전문가 양성 성격 입니다.

심; 아이들이 삶의고민을 친 환경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우리몫이다.

왜 생태인가에대한 고민과 합의를 하고 시작하는게 중요합니다.

여러 생물의 이름등 방법적인 부분보다 의미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여러권의 책을 읽고 철학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책을 골라줄수 있 다.)

현장학습을 할땐 여러사람이 적기보다 비디오나 카세트를 이용해 녹음을 하고

나중에 리뷰하면서 함께 기록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조직적 기록에 충실하면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다.

서울시에서 공원 안내자프로그램을 개발중인데(월드컵준비로) 가능한 사람들은 함께하면 여러 생태전문가의 교육을 받을수 있으니 생각해보라.

(선생님이 가시고)

맨발; 우리는 일정은 잡혀있는데 내용이 없다 .내용을 잡자
코; 자체 세미나를 어찌할 것인지 이야기 하자.
○○; 각 아린이집의 상황나누기는 어찌할 것인가?
**; 인원예 비해 실제적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
맨발; 목적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자.
할 수 있는 방식을 열어놓고 자체세미나 일정을 고민해야 한다.
역새풀; 피터팬과 나눌수 있는지도 정해야한다.
왜 생태모듬을 왔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보고 합의하고 가야하지않나?
우리 삶이 바뀌는 문제로 같이 가야 하는것.생태적인 삶으로 바뀌는 우리
모 습을 나누고 싶어서...
맨발; 아이들과 나눌수 있는 교육적 기술도 중요 하지만 내삶을 되돌아보고
공생공존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속에 있는 것.
왜 생태주의인가?에대한 철학과 기술을 공유해야한다고 본다.
코;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지향할 점 이지만 우리의 1년의 목적으로보면 너무
방대하다. 우리 모임의 목표는 분명히 하자.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교육과정속에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보자.
둘리엄마; 자체세미나를 통해 기본 철학을 가지고 시작해야한다.생태모듬을
장기적으로 갈지는 개인의 선택으로 남기고 이야기를 축소해야할 것 같다.
심상옥 선생님에게 자료요청을 하고 첫 번째 모임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을 잡고 오늘은 모임날짜와 강사섭외등을 알아보자.단편적 만남보다
는 유기적 ,철학적토론이 있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책을 읽고 토론이 되어
야 하지 않나?

.....

이야기끝에 이번주 까지 생태모듬 사이트를 이용해 세미나 책에대한 의견을 나눠 선정하기
로 하였습니다.(심선생님이 선정해주신 책과 우리가 읽어본 책 중에)

맨발이 심상옥 선생님께 책목록을 받기로하였습니다.

다음모임은 5월 8일 청계산 (류창희 선생님과 나들이 -개구리와 도롱뇽)

5월 8일 생태나들이 모임 보고 [동산, 2002-05-14,35]
늦었지요. 죄송하구요.

정리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올려주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금요일에 봅시다.

5월 8일 생태나들이 모임보고

"개구리와 도롱뇽관찰,만들기" 류창희선생님과 청계산에서

참석자 : 봉봉, 코뿔소, 하니, 둘리엄마, 동산, 달팽이, 채송아, 수박, 딸기,
도깨비, 맨발, 억새풀, 풀피리 13명

일정 : 10시 이론으로 좋은숲 구분법, 아이들과 나들이시 유의점

11시 올챙이와 도롱뇽관찰 및 설명

13시 점심

14시 나무목걸이 만들기

16시 마무리

좋은숲 구분법

거미줄이 없다.(먹을 것이 풍부하여 거미줄을 치지 않아도 먹이가 가능)

땅이 부드럽다.

풀이 많으나 덩굴식물이 많지 않는곳

커다란 나무가 듬성듬성 많은 곳으로 숲에 들어가면 멀리보인다.(전봉산)

아이들과 나들이시 유의점

교사들의 선입견을 아이들에게 인식시키지 않는다(벌레를 보고 징그러워 하는것등)

스스로 만져보고 느끼면서 자연을 체험하도록한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 보게한다.(명칭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다.(공존의 의미를 ...)

기준점을 제시하여 비교의 기준을 삼아 설명한다.

나무는 참나무, 개구리는 참개구리, 꽃은참꽃(진달래), 새는 참새등으로

참이 들어간 모든 것은 옛날 선조들에게는 생활의 기준점이 되었다.

나들이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한다.(유래, 역사등)

터전을 중심으로 어디를 어떻게 거쳐서 왔는지도 설명 지리 및 거리감을 알게한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할수 있도록 교사가 준비(물건 이야기등)

나무나 꽃을 꺾으되 일방적이지 않는 자연과 인간이 주고받는 관계에 대한 설명

강압적이거나 막연하게 이해 시켜서는 안된다.

아이들에게 "안돼"로 일괄되게 막기보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개구리와 도롱뇽 관찰

올챙이 관찰

개구리,도롱뇽,맹꽁이 새끼들도 올챙이다.

올챙이는 뱃속이 다 보이며 똥으로 가득차있다. 끝없이 먹으면서 배설도 이루어진다.

올챙이가 쉴 때는 밑바닥에 붙어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올챙이의 영양분은 꼬리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후 뒷다리에 힘을 비축하기 위함이다.

올챙이가 뒷다리가 먼저 형성되는 것은 개구리로 변한 이후에 뒷다리사용이 많으며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개구리의 알은 한개의 막에 싸여 있으나 도롱뇽알은 두 개의 막으로 싸여 있다.

도롱뇽알의 막은 올챙이가 빨아서 먹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다. 올챙이는 모든 것을 빨아서 섭취하는게 생선 쥐등 모든 것을 먹는다.

올챙이를 잡았을 때 죽게 되는 이유

올챙이의 체온은 5도시이며 사람의 온도는 36.5도 올챙이가 화상으로 죽게도 된다.

사람손에 있는 미생물이 올챙이 몸에 묻어서 다른 올챙이가 그것을 잡아 먹는 과정에서 올챙이는 물속에 살면서도 나와서 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여항에서 기를때는 돌등을 놓아 주어서 올챙이가 물밖에서 쉴수 있도록 한다.)

개구리의 종류는 청개구리, 산개구리, 참개구리, 옴개구리, 황소개구리,(?)

개구리의 구분은 울음주머니로

개구리의 수명은 12년에서 15년 사이

겨울잠에서는 수캐구리가 먼저 깨어나서 산란 장소를 정해 놓고서 올면 암캐구리가 깨어난다.

개구리는 수캐구리만 운다. 암캐구리는 울음 주머니가 없다.

수캐구리는 다리에 짝짓기 돌기가 있다.

개구리는 배를 만지면 울다.

참개구리는 울음주머니가 2개 배가 하얗고 색깔이 다양해 주변보호색 가능

청개구리는 울음주머니가 1개

나무 목걸이 만들기

다음일정

6월은 나무와 들꽃에 대하여

6월 5일 9시40분 청계산 매표소앞

준비물은 이후에 알림

피터팬과 이론 강의

5월 17일 공동체교육 사무국에서늦은 7시에

자체세미나

6월 셋째주 금요일에 "어린이 생태학"

나무 목걸이 만들기 - 코딱지 흠피 퍼움 - [sinchasun, 2002-06-07,26]
코딱지

Homepage

<http://ecomadang.com>

Subject

나무목걸이 만들기... 참고하세요..

나무목걸이 만들기

준비물:쪽동백나무, 벗나무, 참회나무 어슷썰기, 구멍 뚫는 드릴, 샤프(300방), 색실끈, 전통매
듭, 유성펜(네임펜), 색연필, 낚시줄.

첫째-어슷썰기한 나무를 샤프로 문지른다.

나무 앞 뒤 나이트가 잘 나오도록 매끈하게 문지른다.

둘째-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뚫는다.

셋째-네임펜으로 앞면과 뒷면에꽃, 열매, 새, 곤충 등 그리고 싶은 것을 정성껏 그린다.

색연필로 주변을 색칠해도 좋음.

넷째-구멍에 색실 끈을 넣는다.

다섯째-색실 끈에 전통매듭을 낚시줄을 이용하여 넣는다.

여섯째-전통끈매기로 연결하여 목에 건다.

주의 사항.

☞ 나무는 잘 갈라지지 않고..바탕이 흰색인 것을 사용하거나..무늬가 있는 것을 이용한다.

☞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갈라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샤프로 문지를 때 손가락을 문질러 다치지 않도록 한다.

☞ 나무가 마른 것을 사용하여야 네임펜이 번지지 않고, 색연필로 색칠하기에 좋다.

☞ 전통매듭

8월 갯펄탐사 준비물입니다. [kil979, 2002-07-03,22]

모종삽, 큰삽, 갈아입을 옷, 맛소금, 관찰통, 필기도구.

수박이 편하게 가는 관계료 삽을 준비 할께요.

근데 그때도 이번 기사님과 가는 거지요?,,,,,(아니면 못 가져감..)

그리고 도시락은 안 싸와도 되요.

씻을테가 마땅치 않아서 칼국수집에서 물값을 내던지 칼국수를 사먹던지 해야
한다네요..

7,2 생태나들이 준비물 확인해주세요(추가내용) [맨발, 2002-06-20,23]

7월 2일 생태나들이 정검

-개인준비물: 물에 들어 갈 복장(긴팔), 샌달, 모자, 수경, 돋보기, 필기도구,색연필,
붓12호,관찰통(피트병:콜라병이 좋으나요)

-모듬별준비물: 떡밥,족대 (낚시가게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5천원~6천원),
수조 (젤리보플라스틱통이 좋습니다.뚜껑에 구멍을 많이 내야
한다는군요.)

뜰채 (물고기 판매하는 곳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청계산에서 맺은 인연을 기억하시죠! 서로 나눠 준비하세요.

준비된 상황을 게시판에 모듬별로 올려주세요.(필수)

-----> 다음주 금요일까지 준비완료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로 이름표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2002년 6월 19일 모임 내용 [시금치, 2002-06-20,32]

참석인원: 맨발, 딸기, 수박, 시금치, 코뿔소, 하니, 억새풀, 채송화

1. 피터팬과 만남-주제: 생태탐사 프로그램 기획하기

2.7월 2일 생태나들이 점검

-개인준비물: 물에 들어 갈 복장(긴팔), 샌달, 모자, 수경, 돋보기, 필기도구,색연필, 붓12호,관찰통(피트병:콜라병이 좋으나요)

-모듬별준비물: 떡밥,죽대 (낙시가게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젤리보플라스틱통이 좋답니다.뚜껑에 구멍을 많이 내야

한다는군요.)

뜰채 (물고기 판매하는 곳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청계산에서 맺은 인연을 기억하시죠! 서로 나눠 준비하세요.

준비된 상황을 게시판에 모듬별로 올려주세요.(필수)

-장소:양평 수입천

-출발:양재 구민회관 앞 9시 (늦지 않도록 해 주세요. 혹(...) 연락주시구요)

3.여름교사대회 진행 내용 논의

*4개의 모듬으로 진행- 저희는 3명씩(1모듬은 4인) 모듬의 안내를 맡습니다.

*모듬나누기는 7월2일에 최종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짜진 모듬도 있습니다.)

-2회의 오전 야외활동:모듬별 자체 진행

-2회의 오후 모임:첫날은 생태에 대한 이야기 나눔의 시간으로 가구요.

둘째날은 생태나들이 정리(각교사의 터전에 맞는프로그램 짜보기)

-자료집만들기:억새풀,딸기,시금치가 맡기로 했습니다.

-여름교사대회생태모듬 참석교사는 모두 "어린이 생태학"책 필독

4.생태모듬 운영에 대하여

-6월에 서기가 없이 진행이 되었답니다. 혹 6월 나들이(청계산 숲)내용 정리한 글이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7월 서기 자원하실 분 7월 2일 나들이때 알려주세요(맨발에게)

-지난 6월 14일 모임에 많은 분이 못오셨습니다. 모임에 되도록 참여 해 주세요.

생태모듬 일정과 내용 [맨발, 2002-06-12,33]

6월`7월은 교사대회의 진행을 위한 세미나와 강좌가 있습니다.

6월 14일(금) 기획회의

19일(수) 피터팬의 기획강좌

7월 6일(토) 천안 사전답사

10일(수) 피터팬과 함께 기획하기

** 생태모듬 여러분

다른 교사분들과 어떻게 즐겁게 작업할지 생각하고 계시죠?

그동안 배운것들을 함께 풀어내고 또 복습(?)하는 자리이니

두려워 말고 천천히 즐기도록 합시다.

잘하는 것보다 못하더라도 함께 한다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환경교육 자료 - 환경운동연합(환경교육센터) [sinchasun, 2002-03-28,24]

사이트 주소

WWW.KFEM.OR.KR

으로 들어오세요.

좋은 정보가 참 많습니다.

교사대회 생태 모듬 준비이야기 [역새플, 2002-07-15,34]

주어진 시간은

25日 -- 오후 3시-6시 --- 저녁 7시-9시

26日 -- 오전 9시-12시 ---- 저녁 7시-9시

이구요..

그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 기획회의를 했는데요.

모듬 인원 모두가 참여한 회의가 한번도 없어 멤버가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그래도 공유된 안이 몇 가지 있어 이것을 틀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할 것 같네요.

(17일 제헌절 7시부터 모듬 인원이 전원 참여로 최종 기획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낮 시간은 숲으로 나들이를 가고요.. 저녁 시간에는 세미나를 하기로 했지요.

-나들이 때 4모듬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요.(생태 모듬원 2-3명과 교사9명 정도로 11-12명이 한 모듬.)

-저녁 세미나는요.. 어린이집 현장 나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기로 했지요.

나들이에선.. 직접 숲 속에서 오감을 열고 자연을 만끽하며, 그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생태적 감성을 깨울 수 있구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는 저녁 시간을 통해 각 어린이 집 현장 나들이 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지요..

나들이에서의 활동 역시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지요?

오감을 열고 생태적 감성을 깨운다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

나들이 때는요..

숲 속 생명을 만나는 건데요..

숲의 생명은 다양성이죠.. 다양한 생명들의 조화로운 관계..

흙이 있고, 돌이 있고, 땅속 생물들이 있지요..

거기엔 초본, 목본, 곤충 등의 작은 생물, 동물까지 모두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봐도 빠뜨린 게 부지기수지요..

이 많은 생명들의 이름에 대해, 생태에 대해 아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전문가라도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우선, 맘을 열고 관심을 갖는 게 먼저겠지요.. 그러면서 꽃이든 곤충이든 관계를 맺을 수 있구요.. 그렇게 관계를 맺다보면 궁금해집니다. "참 예쁘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예는 여기서 왜 이렇게 자랄까?"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소리를 낼까..이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지?" 감성은 이렇게 깨어나는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 맺기가 시작이 되면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느낌으로 표현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안의 자연을 일깨웁니다..

숲 속의 다양한 생명을 만나고, 궁금해하며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 이 삼박자가 맞으면서 우리는 내 안의 자연을 만나게 되지요..

자연에선 아이 어른이 따로 없지요.. 함께 느끼고 교감하고 표현하면서 모두가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나들이 때는 이런 표현 작업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를 이야기 해보았지요..(천안 답사를 함께 하신 심상옥 선생님께서 숲 생태와 표현작업에 대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만의 도감 만들기

목본, 초본, 곤충, 등.. 원 하는 것을 모둠 별로 정해서 두 번의 나들이에서 보았던 것을 갖고 자유롭게 숲 속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탁본을 해도 좋고요.. 나뭇잎이나 나무 껍질을 직접 갖다 붙여도 되구요..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구요.. 뭐 방법은 무궁무진하답니다. 형식과 틀도 알아서.. 그야말로 나만의 도감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교사 자신이 집중해서 탐사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교사이기 때문에 드는 어찌할 수 없는 생각들.. 이럴테면.. '우리 아이들과는 이렇게 해 보는 게 좋겠네..' 하며 자연스레 이런 저런 생각들이 들테지요..^^*

자신이 깊이 빠지지 않으면 자연과 아이들과 교감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연으로의 나들이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구요..

-소리지도 만들기

숲 속 깊이 자리 앉아 조용히 눈감고 들리는 소리를 느낌으로 표현해 봅시다. 숲 속에선 사방에서 소리가 들린답니다. 모듬원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앉아 자기를 중심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에 그 소리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되도록 언어 표현을 자제하고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다양한 소리만큼이나 다양한 표현이 나올 것 같네요.. 나중에 서로 이야기하며 맞추어 보면 무척 재밌을 것 같아요..

-신갈나무 속에 사는 곤충과 만나기

왜 나무 보면 아래 부분에 수피가 안쪽으로 푹 들어간 곳 있지요? 특히 참나무 경우에는 수액 덕분에 그 곳이 곤충의 서식처가 된답니다. 수액을 먹기 위해 사슴벌레를 비롯한 다양한 곤충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그 속에 좀 밝은 렌턴을 한참 비추고 있으면 곤충들이 나온 데요.. 이 때 요 놈들을 만날 수가 있지요. 이 때는 자세히 그려보기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땅 속 생물, 그 작은 세계로..

돋보기를 갖고 숲이든 공원이든 각자 흙과 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한 곳에 중심을 잡고 1m반경에 원을 그리든 별을 그리든 그리고 싶은 데로 그린 후 몸을 낮추어 작은 생물들을 찾아봅니다. 그런 후 자장 맘에 남는 느낌을, 역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풀어내는 거지요.. 생각지도 못한 애들을 만날 수도 있구요.. '아! 이런 곳에도 생명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 그 장소가 숲이든 공원이든 터전 안이든.. 어떠한 현장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들이 때의 작업은 뭐 이 정도로 하구요..

이젠 세미나 이야기를 해야지요.

중심 축은 이런 것이지요. 현장 나들이 사례를 나누면서, 낮 활동의 직접 체험과 그간 해왔던 아이들과의 나들이에서 좋았던 것들, 그렇지 못했던 것들,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던 것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역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흐름이지요.

첫 째, 각 어린이집의 나들이 사례를 나눈다.

둘 째, 교사가 직접 체험한 낮 나들이 시간에서 느꼈던 것과 그간 했던 현장 나들이에서 가졌던 구체적 인 고민들을 나눈다. (아주 구체적으로)

셋 째,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현장에서 나들이를 통한 생태적 감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이 야기 나눈다.

문제는 두 번째 이야기의 구체적 안을 잡는 일입니다. 그 형식도 함께요..

물론 여러 교사들이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미리 예상된 몇 가지는 진행하는 입장에서 갖고 있어야겠지요?

연령도 다르고 환경도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축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네요..

나들이를 자주 가긴 가는데 공동육아란 현상이 워낙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어떤 주제를 아이들과 함께 가져가 집중하기가 힘들 다는 것. 자연 놀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만 늘 프로그램으로 끝난다는 것..

다시 말해 자연으로의 생태 나들이가 일회적으로 끝난다는 느낌을 다들 갖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익숙지 않은 교사들은 사실 숲에 가서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경우도 있을테구요..

자연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의 여러 행동에 대해서도 그 대응이 어렵지요?

=====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생태주의는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자연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우선 드네요.. 그건.. 생활에서 몸에 배는게 아닌가 싶어요.. 자연의 정서는 멀리 좋은 곳이 아니라 바로 내 발 밑에서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텃밭을 일구고 화단을 가꾸는 예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겠지요..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생활에서 배우고, 삶으로 베어나는 일상 속에, 생태를 자연을 찾는 고민이 우리에게겐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교사 대회 때 생태 모듬은 이런 고민을 함께 가져갔으면 하는 역세의 작은 소망이 있답니다.

음... 그러기 위해선 교사 자신이 생태적 감성을 지니고 있어야겠지요?..

이거.. 쓰고 나니 공유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제 이야기로 채우게 됐네요..

천안 답사 이야기는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대로 심상옥 선생님 멜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좀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요.^* 답장이 오면 곧 올리겠습니다당~~

7/17 기획모임에 대해 [kkt3250, 2002-07-17,13] (둘리엄마)

지난 토요일 답사를 다녀와서 마음은 더 답답합니다.

그 동안 기획모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사를 다녀오다보니 감도 떨어지고 장소 역시 그날 1시간 훑어본 것 같고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느껴졌지요.

이럴바엔 아예 심상옥 선생님이나 유창희 선생님, 피터팬 같은 전문가에게 한코너를 부탁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이게 지금와서 가능한 이야기일까 싶은 의혹이 있지요.)

생태모듬 사람들 3명정도가 조를 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루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같은 조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오늘 저녁 모임 참석도 어렵습니다.

둘리엄마가 진행할 수있는 부분은 각 어린이집의 나들이 사례나누기와 산이 아니라 넓은 장소(공원)에서 진행되는 나의 나무 찾기(2인이 짝을 지어 한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사람은 눈을 뜬 상태에서 눈을 가린 사람이 나무의 감촉, 냄새, 방향등을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눈을 뜨게하고 줌전에 체험했던 나무를 찾게 한다. 2인이 교대로 이런 경험을 나눈 뒤 소감을 나눈다-심상옥 선생님이 알려 준 내용임)등입니다.

2일에 걸친 프로그램 진행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듯 하구요.

전체적으로 모든 조에서 다루어야 할 공통분모를 정하고 그에 대한 세부안을 빨리 같은 조끼리 협의하여 진행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모임에 참석 못하는 부담감과 미안함을 함께 전하며....

17일 기획회의 보고 [lafée, 2002-07-18,57]

답사못간 미안함을 대신하고자 회의보고를 빨리 올립니다.

장소는 민들레영토 본관이었구요, 참석자는 맨발, 억새풀, 코빨소, 동산, 모자, 도깨비, 채송화, 수박, 달팽이, 하니였습니다(둘리엄마와 시금치, 풀피리는 사정상, 딸기는 사이트확인을 못해서 참석치못했습니다).

1. 8월의 일정에 대한 공유

1)5일(월)- 오후7시 / 연구원(장소는 확인요)/ 교사대회평가와 뒷풀이,

9월일정도 계획

2)7일(수)- 오후7시 / 연구원(장소는 확인요) / 심상옥선생님과 세미나(강사부분도 확인요)

3)26일(월)- 갯벌탐사(유창희선생님과)

2. 여름교사대회 프로그램에 대한 나눔

- 장소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은 앞서 답사팀의 상세한 보고를 참조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다들 큰 문제점으로는 생태모임이 전혀 생태적이지 않은 공간에서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계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곳의 수종의 문제(버들치)도 있었구요. 이번 생태모듬의 주제는 "생태적 감수성키우기"이며 예전에 억새풀이 답사후기에 올렸던 자신의 도감만들기와 소리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소리지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었다(도깨비), 모기때문에 집중할수가 없었다(관악산경험에서 맨발)의 반론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동안 토론을 하고 칠판까지 빌려야 했던 부분은 시간배정문제와 장소를 어떻게 융통성있게 활용할것인가, 저녁세미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지어진 내용은 우선

1)나들이에 관한 부분

네모뎀별로 장소를 이동한다.

(1)소나무숲

(2)상수리나무(곤충)

(3)나만의 도감(숲)- 상수리나무숲에서 계곡으로 이동하는 사이공간으로 예상

(4)계곡(이부분은 공간이 협소하고 웅덩이몇개만 있어 30분정도로 예상)

- 나만의 도감: 탁본이든, 나뭇잎, 꽃잎등을 붙이든, 그림을 그리든 각자의 방식대로 자유로운 도감만들기

2)나들이 시간배정(첫째날 3~6시 / 둘째날 오전과 오후시간)

30분 이야기

2시간 활동(이부분에 대해서는 모뎀별로 이동하는걸로)

30분 이야기및 마무리(이동포함)

3)저녁세미나에 관한 부분

- 첫째날

(1)나들이 사례발표

발제: 산어린이집 / 산학교(20분씩 약 40분)

(사진이나 문서자료는 발제자가 준비)

과정과 좋았던점, 문제점 -->정리

(2)모듬별 세미나(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나 문제의식, 대안찾기 등)

- 1시간 예상

- 둘째날

(1)나만의 목걸이만들기

(2)각 모듬별 평가의 시간(소감나누기) -->(1), (2)해서 1시간예상

(3)모듬별 발표(각 모듬대표)--> 1시간 예상

*준비물 : 생태모듬원 개인준비물입니다.

1. 줄없는 종합장(20매)

2. 필기도구

3. 색연필

4. 네임펜

5. 돋보기

6. 손전등(1조 4명정도)

7. 긴팔, 긴옷(바지)

8. 모자

9. 스카치테이프, 풀, 공작용본드(목공본드), 칼, 가위

10. 벌레물린데 바르는 약(버물디, 물린디, 물파스중 아무거나)

* 생태모듬원들 연락은 채송화가 임의로 각모듬당 인원을 배치(내일 목요일까지 사이트에 올림) 각 모듬에서는 모듬배정이름을 확인하고 해당모듬신청자(각 어린이집)에게 준비물을 알리는 전화나 메일을 보낸다(왜냐하면 준비물이 정말 중요하므로).

* 또하나는 모듬연락문제(비상연락망)도 나왔는데 가급적 사이트를 자주확인하고 한번쯤은 전화를 해주는 것도 좋을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확인하는것이 가장 중요할것 같다. 다들 각자 일 챙기고 터전일하기도 정말 힘든 하루이기 때문이다.

* 힘든 7월입니다. 그러나 교사대회의 반가운 얼굴들, 즐거운 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입가에 웃음이 가득해집니다. 어떻게보면 내용이 빈약하게도 보이지만 각자 맡은 일들 열심히 제몫한다면 꽤실한(단단한) 생태모듬이 될것 같네요.

그럼 교사대회때 봐요. ^^

(혹시 오늘 회의내용중 달팽이가 빠뜨린게 있으면 누가 답글로 대신해주면 좋을것 같아요).

교사대회++ 생태모듬참가자들의 목소리 [팬발, 2002-08-05,26]

교사대회 참가자들의 목소리 -생태나들이 모듬

잘할수있을까란 부담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오히려 모듬안내자인 자신이 더 많을걸 얻어가는 것 같다. 아이들을 잇고 자연을 느끼고 자연속에서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에 대한 경외! 더 낮아진 겸손이 아닐까...

더운 날씨에 더 고생 많았던 안내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

덥다고 투정도 많이 했지만.. 작은 모듬으로 나눠 더 자세히 얘기 나눠 볼 수 있어 좋았다. 눈+코+입+귀를 열어준 생태 파이팅!!!

지금까지 쉽게 지나치며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게된 내 자신에 대해 많은 자신감을 느낄수있었고....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있었던 거 같다. 안내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파이팅!!

모듬내에서 개별고민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배정되었다면 더 좋았을겁니다.

시간이 좀 짧았어요... 첫날은 아무래도 마음 문 열기 힘들었는데 두 번째는 좋더라구요..세 번째는 더 좋지 않을까요.. 생태모듬안내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참조아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감~ 넘 신선하고 몸으로 와 닿는 체험이었던것 같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놀이감을 발굴(?)해서 다음에도 재밌게 배우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연 놀이감이 더 있었으면.... 생태적 접근에 대해 구체적인 모듬이 있었으면,,

모듬안내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속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어떻게 즐겁게 보내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의 모습(개미알 관찰,옆새우등등)을 본 것이 좋았어요. 살생의 문제를 , 자연의 순환, 생명순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겠다고 생각했지요. 앞으로 교사대회에서 생태나들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많이 알게되었으면 해요.-소꿉마당 박꽃

자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수있다는 것에 놀라웠다.

새로운 눈을 뜬것같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무척 놀랐다. 어떤 것을 정해놓고 보기보다 그것을 느끼고 보고해서 자연을 알아가야한다는 것을 알아서 좋았다. 처음엔 광범위하다고 느껴었는데 새로운 눈을 뜨고 나의 동기를 유발할수있다는 것에 좋았다.

자연물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배울수있어서 참 좋았다.

자연을 대하는 자세, 굳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즐기고, 내 삶에 뿌리내릴 수 있는 모습이 되길 바란다.

교사들에게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나들이 시간이 부족, 세미나 시간도 부족. 그 러. 나 전반적 흐름도 좋았구요.

공동육아에서 아이들과의 놀이와 자녀와의 놀이중 자연과 더불어 놀수있다는 것을 새삼 배워봅니다. 그저 바라보는 자연이 아닌 내안에서 자연을 느끼고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고, 먼곳에서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도 생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고맙게 여긴다. 앞으로도 공부해보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대해 배우고 싶어서 오긴 했는데 사실 날이 더워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재미있게 진행되어서 좋았던 것 가타아요. 다른 터전에서 나들이 어떻게 하는지 고민들에 대해 들어볼수있어서 내가 가는 나들이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것 같고요.

나들이 프로그램 선례(느티나무)같은 것을 더 많이 설명 듣고싶고 생태학적 면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면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배울수없으니 더 많이 알려주었으면 하네요. 날이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의 시간으로 "생태나들이"의 기본적인 앎과 느낌을 느낀 듯 싶어요.

좀더 많은 시간 함께 하면서 교사들간의 의견교류와 자연을 느껴보았으면 해요.

그리고 자연물을 이용해서 교사들과 함께 놀며 즐거움을 나누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수고많으셨고, 감사해요.

여러가지 풀 이름을 많이 배우고 좋은 시간이 되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더 알고싶었던 풀 이름이 있었는데 안내자께서 잘모르셔서 몇가지를 넘어갔었는데.. 조금 아쉬웠고, 풀,나무,곤충의 이름에 대한 유래가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아이들과의 자연에서의 놀이와 관찰은 교사의 그림속에서 관찰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나 생물의 이름이나 특성 등을 알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터전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자극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성을 배울 수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들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나만의 방법이 생겼다. 벌레를 다르게 보게 되었고 자연과 더 가까워져 친해지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던 것처럼 즐거웠고 안내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아서 아이들과 재밌게 나들이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좀더 시간이 길어서 숲에 대한 것들을 더 알수있었으면 ... 하는 아쉬움이 남구요.

그래도 짧은 시간안에 나들이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쯤은 풀, 벌레...들을 한번 더 유심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넘넘 좋았어요. 그리고요... 생태나들이와 터전에서 연계적인 부분이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넘넘 재미있게 이틀을 보냈네요.

고생많으셨어요. 안내자분들 덕분에 나들이를 앞으로 더욱 재미있게 다닐수있게 됐네요^^.

단계를 나눠서 해주시면 매번 교사대회때 같은 프로그램말고 이번이 1단계라면 다음교사대회때 조금씩 심회해서....

자연의 소리가 보였고

자연의 색깔이 들렸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 서로의 고민나누기와 직접 자연을 만나는 시간도 더 있었으면.....

8월 16일 모임 보고 [lafée, 2002-07-18,57]

장소는 “여백의 나무” 였구요, 참석자는 맨발, 코빨소, 동산, 채송화, 달팽이, 시금치, 딸기였습니다.

1. 9월의 일정에 대한 공유

- 1)9월 6일(금)- 심상옥선생님과 함께하는 세미나(오후7시 / 연구원(장소는 확인요))
- 2)9월 18일(수)- 충북 영동나들이+ (한달에 세 번씩 만나는 일정이 어렵다는 모듬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날은 아침부터 저녁세미나까지 온종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2. 이후 강좌(강의와 자체세미나부분)에 대한 나눔

1)강사부분에 대한 이야기

·심상옥선생님은 아이들과 하는 프로그램 전문가고, 이부미선생님은 공동육아의 교육방법에 대한 전문가시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사섭외를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2)제안사항(강의와 자체세미나 주제에 대한 부분)

- 생태주의 역사와 철학(“자연과의 공존”의 방향성으로 심상옥선생님께)
- 유아생태교육의 흐름과 현황에 대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포함해서(예를 들어 부산에서 있는 유아생태교육과 생태교육연구회에 대한 이야기도)

3)자체세미나 - 자체적으로 내부자료모으는 일, 나들이에 대한 자료화, 공유 등

3. 여름교사대회 평가

- 다른 모듬(세시절기, 놀이와 노래, 표현예술)에 비해 생태나들이모듬은 자체역량으로 거둔 성공이라는 것이 큰 성과였다.
- (조별구성원이 지나치게 가라앉아있는 경우)마음열기 시간을 여유있게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 시작장소의 적절함도 중요하다(생태나들이의 필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장소, 분위기를 확 끌어올릴수 있는 장소도 중요하다).
- 생물공부가 아니므로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음에도(주제도 생태적 감수성키우기였으므로) 많은 분들이 이름이나 유래등을 알고 싶어했다. 아마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고 현장에 접목시키고싶은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라 판단되는데, 다음에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지않을까.
- 이제껏(7월초까지) 공부만 하다가 여름교사대회때는 점검의 시기, 노출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유익하고 모듬원 모두에게 필요한 공부가 되었던 것 같다.

4. 현장학교 강의에 대해

▶9월부터 여는 현장학교에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았으면 하는 바람과, 기존의 모듬원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자체 강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다. 아마 여름교사대회때도 많은 호응도와 성공에 힘입은 듯 한데... 생태모듬원들의 생각은 힘들지만 여름교사대회때처럼 다같이 해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일정은 10월6일(일) 어린이집교사를 위한 생태 나들이 강좌/ 반일 3시간정도

10월 10일(목) 생태이론강좌 / 저녁7시~9시 , 10월13일(일) 방과후교사를 위한 생태나들이

강좌(반일 3시간정도)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우선 생태이론강좌는 이론부분에 정통한 맨발과 코빨소(주제: 왜 생태교육을 하는가)

·방과후부분은 역시 방과후교사이거나 가장 잘 진행하실 것 같은 시금치, 억새풀, 딸기, 수박

·어린이집부분은(인원 35명 예상해서 세모뚝정도) 동산, 도깨비, 모자, 하니, 돌리엄마, 달팽이, 채송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북한산이고, 아마 우이동 꿈꾸는 어린이집쪽에서 출발할 듯합니다. 이후 모임에서 일정이나 내용에 대한 공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북한산 사전답사는 10월5일(토)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임때마다 인원이 줄어들어 마음이 아픕니다. 바쁜 일정이 있으시거나 사정이 생기시면 모뚱원 누구에게라도 연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록과 자연친화적인 놀이노래에 관한 자료를 올립니다. 참조해주세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왔다갔다하면서 메모한관계로 충분치가 못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붕붕, 덕분에 저녁 잘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덤입니다. ^^

8월 갯펄탐사 준비물입니다. [kil979, 2002-07-03,23]

모종삽, 큰삽, 갈아입을 옷, 맛소금, 관찰통, 필기도구.

수박이 편하게 가는 관계로 삽을 준비 할께요.

근데 그때도 이번 기사님과 가는 거지요?,,,,,(아니면 못 가져감..)

그리고 도시락은 안 싸와도 되요.

셋을테가 마땅치 않아서 칼국수집에서 물값을 내던지 칼국수를 사먹던지 해야 한다네요..

8월 26일 준비물(갯펄탐사때) [sinchasun, 2002-08-23,20]

관찰통 , 네임펜(유성), 돋보기, 필기도구, 메모장

갈아입을 옷, 슬리퍼, 모자, 맛소금(통에 넣어서), 된장(집에서 담근것)

이상입니다

점심은 사먹기로 했습니다 밥값 5.000원 지참

이상

대부도 갯벌에서 무엇을 가져왔나.. [억새풀, 2002-09-07,28]

나들이 다녀오자마자 정리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넘 많이 흘러 버렸네요..
그래서 기억도 가물가물~

그래도 기억을 짜내고 짜내서 함 썰을 풀어볼게요..

양재에 모두 모여 내사가 나온다는 말에 이름표까지 하나씩 달고 대부도로 향했지요.

가는 차 안에서는 코딱지의 갯벌이야기와 코딱지가 나오는 갯벌에 관련된 비디오도 한편 봤어요.. 자료집을 보며 설명도 듣고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곡에 맞추어 갯벌에 사는 애들의 특징과 생태를 적절히 나열해 외우기 쉽게 개사를 했더라구요.. 두어 번 부르고 뛰하고 하니 벌써 도착!

갯벌 끝에 바다가 걸렸나~
바다가 넓은가, 갯벌이 넓은가..
끝 모를 벌이 펼쳐져 있는,
턱 하니 트인 곳에 서니 몸도 마음도 시원해 졌지요..

맨발로 들어가 이것 저것 많이 보았네요..
민챙이, 고동류, 밤게, 서해비단고동, 좁쌀비단고동, 갯지렁이, 집갯지렁이, 칠게, 길게 등..

맛소금을 뿌리고 된장을 풀어서 맛조개와 쪽파 집갯지렁이도 잡았지요..

코딱지는 여기저기 삽으로 흙을 퍼내었구요.. 다른 교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삽으로 파내다가 죽은 놈들도 많았어요.. 다리가 잘린 게, 몸이 두 동강이가 난 갯지렁이, 개불알이었나요? 꼭 개불알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여튼 그놈은 시뻘건 선연한 피를 흘리며 죽어갔지요..

코딱지 말로는 그래도 산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고..
혹여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든 책임은 면할 수 없단 생각이 듭니다.

쪽이며, 칠게, 길게, 밤게, 갯지렁이, 집갯지렁이, 서해비단고동, 좁쌀무늬고동 등.. 가짓수도 많거니와 종 하나에 여러 마리를 채집 통에 담아 갯벌을 나왔네요..
그리고는 해안가변에 있는 칼국수 집에서 배 터지게 먹고는..
잡아온 놈들을 관찰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답니다.
주어온 조개껍데기로 목걸이도 만들고.

목에 하나, 둘, 셋까지 걸고..
우리는 대부도를 나와 어시장에 갔네요..

가서는 갯벌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며 설명도 듣고요..
낮에 먹었던 칼국수가 아직 장에 남아있는데..
불에 구운 조개살을 넣으며
조개구이도 배가 터지도록 먹었지요..

먹다 판이 끝나버린 듯한 느낌..

내 안에 무엇을 담아왔나..
생태적 감성인가..
불에 익힌 조개살인가..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자연인의 밤을 물한리에서.. - 류창희 선생님 주최 나들이 [sinchasun, 2002-08-23,16]
야조인 모여라~~자연인 모여라~~

모든 야생조류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2002/08/20]

야조인, 자연인의 밤을 물한리에서 합니다.

날짜 : 2002년 8월 24-25일 토-일

대상 : 새를 좋아하거나 자연을 사랑하는 혹은 코딱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출발 : 2002년 8월 24일 13:00

장소 : 서초구청과 외교안보연구원 사잇길...양재역에서 서초구청 방면으로 나오면 됨.

차량 : 이화항공여행사 안기수 기사님 018-304-2839

비용 : 모든 숙식과 먹을거리, 마실거리 비용은 걱정이형님과 코딱지, 물한산장에서 해결.

*** 참가하는 사람은 왕복차비 일만오천원만 지불.... **** 없으면 안내도 됨..

참가신청: 각 대학야조회장에게 알려서 마당홈에 인원을 알려줌.

기타참가: 사회단체, 개인은 마당홈에 참가의사를 전하면 됨...

준비물:개인준비물, 물놀이 준비, 긴팔, 긴바지, 모자, 쌍안경, 필드, 도감...

일정

24일..첫째날

13:00 서초구청 출발

16:00 물한리 도착

16:00-18:00 물놀이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만남의 시간

21:00- 달과 별과 사람의 대화

25일..둘째날

06:00 일어나기

07:00 세수하기, 물수제비

08:00-09:00 아침먹기

09:00-12:00 숲으로의 여행, 탐조여행,

12:00-13:00 점심먹기

13:00-15:00 물속체험, 뒷정리

15:00-18:00 집으로 출발---도착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댓글에 신청하세요..

내안의 자연을 찾아서.. [억새풀, 2002-09-13,27]
몸 다스리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치고 힘든 '내 몸'에게 말걸기를 해보렵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가는 삶..

몸과마음이늘함께가길..

<한살림 강좌의 일부분입니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한다

4. 식생활

1) 두끼식

식생활에는 하루 두 끼식, 소식, 단식, 생채식이 있습니다.

하루 두 끼를 먹을 때는 오전 11시, 오후 5-6시에 먹습니다. 이유는 아침에는 노폐물을 배설하는 신장기능이 왕성하게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음식을 먹으면 그 기능을 방해하고 흡수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조식폐지만으로도 66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학자가 연구한 결과 하루 한끼식을 하면 노폐물이 127% 빠지고, 두끼식을 하면 100% 빠지고, 세끼식을 하면 66% 빠진답니다. 얼마 전 금빛 사리 20개가 나온 혜암 종정도 한끼식을 하신 분입니다. 성철 스님 식사는 2mm짜리 당근 두 개, 콩자반 1 큰 술, 채 썰은 감자국, 밥 한 공기 반, 죽갓 조금 이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세끼를 먹는 것은 금수의 생활이고, 두끼를 먹는 것은 인간의 생활이고, 한끼를 먹는 것은 00의 생활이라고 합니다.(실제 금수는 먹을 만큼만 먹고, 과식하는 건 사람뿐이러는데, 그래서 더불어 사람이 키우는 짐승도 과식하고. 그러니 진짜 금수가 들으면 화낼 것 같다 : 녹취자 생각)

이렇게 두끼식을 하는 것은 단식 효과도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먹고 오후 5시에 먹으면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8시간 단식이 됩니다. 이렇게 두끼식을 하면 장의 활동도 좋아지고 노폐물 배설이 활발하여 변비와 비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밥을 먹지 않으면 식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안 먹는데요, 하는 분들도 따져보면 빵이나 다른 것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두끼라 하면 아침 먹을 양을 점심, 저녁에 합해서 먹어야 하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그러나 완전히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식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과식은 아토피의 원인입니다. 아토피 아이들 보면 먹을 때 왕창 먹거나 음료수도 한 병을 다 먹습니다. 과식이 안 좋은 것은 위액이 묽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생활로 피부 구멍도 닫힌 데다가 당분 함유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데, 과식까지 하게 되니 병이 생깁니다.

아토피 얘기가 나와서 덧붙인다면 요즘 아기들한테 끓인 물을 주는데, 절대 안됩니다. 생수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생수 흡수 능력은 1분에 1g입니다. 그렇지만 1분에 1g씩 먹

을 수 없으니까 30분에 30g(소주 한 잔)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신장에 해독을 미칩니다. 물 해독도 심각합니다. 어디서는 하루에 3-4리터를 먹으라고 한하는데, 아토피 아이들은 특히 물을 적게 자주 훌쩍훌쩍 마시듯 먹어 하루 2리터 이상 마셔야 합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 자기 전에는 물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30분에 소주 한 잔 정도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밥을 먹고 물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밥 먹은 후 1-2시간 후에, 극도로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3시간 후에 먹어야 합니다.

2) 소식

옛날에는 배양의 8부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8부(80%)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6-7부만 먹어도 됩니다. 먹을거리가 많고 영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토마토를 수경 재배하면 영양분을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린답니다. 그런데 생수로 재배했을 때는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가는데, 영양물을 투입 해주면 뿌리가 짧아집니다. 거기에 영양과다가 되면 뿌리가 썩습니다.

현대인의 장도 이처럼 적게 먹어야 충분한 흡수와 용모의 활동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부족한 것이 염분입니다. 옛날에는 간장, 젓갈을 많이 먹었는데, 현대인은 고 영양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물이 장에 밀려가 쌓입니다. 청소년들을 보면 아이들이 변비가 심하다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의 뿌리에 해당하는 장이 썩습니다. 즉 장의 점막에 구멍이 뚫립니다. 또 항상 염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분을 섭취하면 장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일본의 선인들은 한끼식이나 녹즙 한 컵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장 흡수력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발생한 노폐물까지, 공기 속의 질소를 고정하여 장내에서 영양으로 흡수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흡수력은 50인데 100을 먹으니, 나머지 50은 몸속을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3) 단식

단식합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고 싶지 않을 때는 먹지 말라. 참을 수 없이 먹고 싶을 때도 먹지 말라. 지쳤을 때도 먹지 말라 등등..... (청중 : 하하)

정말 먹고 싶을 때, 정말 배고플 때 먹으면 과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먹지 말라는 겁니다. 또 먹고 싶지 않을 때 왜 억지로 먹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단식 좀 합시다. 단식하기 전날 가볍게 먹고 다음날 단식하고, 그 다음날 점심만 간단히 먹습니다. 이것만 해도 몸이 상쾌합니다. 절대 비만 안됩니다. 단식한다고 전날 왕창 먹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단식할 때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 녹취자 보충) 치료를 목적으로 단식할 때는 10일에서 15일, 길게는 90일까지 단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식하기 전에는 단식에 관한 좋은 책을 두세 번 숙독하고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해야 합니다. 단식하기 며칠 전에 갑자기 단식해야지 하고 시작하면 안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외할아버지 집에서 물만 먹는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할아버지와 수박에 설탕을 넣어 만든 수박화채를 드시면서 너도 먹어라 하시길래 한순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기 전까지는 단식을 하면서도 역도도 들고 운동을 해도 전혀 지치지 않고 멀쩡했는데, 화채 한 순간 먹고는 기운이 쭉 빠져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식 때는 이물질이 더 해롭고 흡수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강합니다. 실제 단식 후 짜장면, 냉면 먹고 사망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는 스님은 배에 수술자국

이 있어 물어보니, 단식 후 미음 속에 있는 쌀알을 먹고 탈이 나서 위를 절제한 수술한 자
국이라고 하더군요. 이처럼 단식 후 보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장기간 단식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보식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4) 생채식

여기 오신 분 중에 녹즙 드시는 분 있으시겠지요? 녹즙을 드실 때는 뿌리, 잎을 다섯 가지
이상 갈아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음, 양의 조화도 이루고, 각 식품의 독성도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때는 2-3배 희석해서 주어야 하며, 갓난아기들에게는 20-30배
희석해서 주어야 합니다. 싫어하면 꿀을 넣든가, 또 애들이 좋아하는 채소나 단맛 나는 당근
을 넣어서 줍니다. 이런 것을 어려서 먹어보야 자연식에 길들여집니다. 녹즙재료 중 컴프리는
성숙한 것은 좋지 않고, 시금치도 수산이 많으니 조금만 먹는게 좋습니다. 과일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식으로 사과 한 조각 죽염에 찍어서 먹는 것은 상관없겠지요. 과일
을 죽염에 찍어서 먹으면 맛이 참 좋습니다. 커피에 죽염 넣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니다. (청중
: 어머니...)

채식의 체험담인데 일년에 한번씩 족삼리라는 혈자리에 쑥뜸을 뜨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뜸을 뜨고 어쩔 수 없이 희석자리에 어울려 고기를 한번이라도 먹게 되면 고기를 먹지 않았
을 때는 맑은 고름이었는데, 고기를 몇 점이라도 먹으면 뜸자리의 고름 색깔이 아주 탁해지
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채식을 하면서 풍욕, 냉온욕을 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생채식 설명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게 되었다. 일반 생채식의 원리도 녹즙할 때처럼 다섯가
지 이상의 채소를 골고루 섞어먹으면 좋다고 한다. 여기에 먹기 좋게 소스를 곁들이면 더
 좋을 것이다. : 녹취자 보충)

유창희샘 생태나들이에 대해 말걸기 [역새플, 2002-09-17,43]

유창희샘 에코 마당에 올린 글입니다.

그동안 선생님과 나들이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세미나 시간에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개구리가 죽어간다면서..

도로가 생기고..
차가 다니고..
개구리가 차에 깔리고...

개구리가 왜 여기로 다시 올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한 개구리 생태 연구는 개구리 논을 만드는 작업으로 이어졌지요..
알을 낳으러 고향으로 오는 개구리를 위해 개구리 이름으로 '개구리 논'을 마련하셨다는 말씀 들으시고 가슴 한 구석 따뜻함을 느꼈네요..

생명을 아끼는 그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겠지요..

손과 발을 살며시 물에 담그면 와서 콧속 입맞춤하는 올챙이를 느끼면서..
수면 위로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뽀뽀뽀뽀하는 수많은 올챙이들을 보면서..

생명이란.. 이런거구나..
존재만으로 이렇게 귀한거구나..
우리 지금 싸우는 이유가 이런거구나.. 했지요..

애써 개구리 이동통로를 만드셨지요..
맘 같아서는 자동차 이동통로를 만들어 개구리는 그대로 다니던 길, 다니게 하는 것이 더 간절하다는 선생님 말씀도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늘~ 그런 사람.. 늙은이..
한결같은 하늘..
모든 걸 받아 안는 바다..
어떤 단어라도 그 의미의 본질을 찾아나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한 나들이가 4번 정도 되나요?
청계산 두 번에 두밀리, 대부도 갯벌까지..

생명이란..

생태란 것이..
다는 아니지만..
다 배울 수도 없는 일이지만..
숲과 계곡과 하천과 별과 바다를 보면서..
그저 조금씩 느껴나가고 있는데요..

참으로 귀한 거구나..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그 귀함을 느끼고 계시겠지요..
그럴거라 믿습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요..

참 많이 돌아다녔다고..
이산 저산 안가본데가 없을 정도로요..
헌데 결국 어떤 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 모든 게 다 있더라고..

청계산에서 제가 처음 선생님 뵈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꽃 한 송이에 우주가 있고..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있으며..
돌 하나에 우주가 있듯이..

모든 만물이 바로 우주라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요는, 그 존재 자체가 결코 그 존재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꽃 한 송이만 보더라도 흙과 물과 별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맥을 같이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 관계를 따라가는 길..
그것이 생태를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데요.

선생님의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면 가끔 어긋난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물로 놀이감을 만든다는 이유로 도구를 사용해 꽤 많은 양의 식물을 채취하는 모습...
물고기를 잡은 후 산소기 없이 자세히 관찰한다는 이유로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시간동안 어
항에 담아두는 모습.. 치어들은 금세 죽어나갔고.. 어른 물고기도 놓아주었을 때 잘 살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으니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설혹,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
은가라는 문제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갯벌에서도 해안선부터 물이 빠진 곳까지 각각의 모래와 흙과 잔물의 정도에 따라 환경도 조금씩 다르고 사는애들도 구획이 지어질 만큼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 끝에서 잡아온 것들을 별 밖으로까지 가져와 한참을 관찰하는 모습..한종에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채집하는 모습.. 채집하는 과정에서 삽으로 벌을 마구 파내어 여러 생물들 몸이 잘리고 피가 나고 죽어 가는 모습들..

빨리 녹는다는 이유로 화학 조미료인 '맛소금'으로 맛조개를 꺼내는 모습.. 된장도 마찬가지로 찻지요..

물론..

자세히 보다 보면 애정이 생깁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자연물로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감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헌데 문제는..

그것의 이름이 '생태나들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류창희' 선생님이 하는 것이기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보다야 자연물로 놀이감을 만들어 노는 것이 좋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네 선조들처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형식으로 간다면, 생태를 접근하는데 놀이감 만들기는 우선 자연물을 대상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놀이감으로 먼저 자연을 만나고 그것을 넘어 자연과 친해지는 것은 현재 도시 아이들에게 좀 요원한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 달에 한번, 그도 안돼서 평생 한번밖에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아이들에게 혹은 어른(교사)에게 생태나들이가 한번의 이벤트여서는 안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기 역시 자세히 보면 좋습니다.. 아..이렇게 생겼구나..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물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할 때 산소기 없이 산소 공급도 해주질 않고 펜찰을 거라며 그냥 본다는 것은 물 속 생태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막는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용존 산소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테지요..

갯벌에서 맛소금을 사용했던 일은 좀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인데요..

왜 맛소금이냐는 질문에, 잘 녹기 때문이라고 답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냥 굵은 소금을 잘게 빻아서 해도 되었을 것을 말이죠..

헌데 아무런 설명 없이 맛소금을 준비물로 딱하니 내시고.. 반생태적인 물질을 말입니다..

된장도 마찬가지로 찻지요..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로 프로그램이 딱 차있는 느낌..

수많은 생명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기보다는 그것의 표면을 즐기는..

어딜 가도 그곳의 먹거리를 먹어봐야 한다고 하셨지요.

아이들과 갯벌을 가서 체험을 한 후 조개를 삶아 먹었더니 아이들이 나중에 먹은것만 기억한다고 하셨던가요..

지역의 먹거리를 먹어보는 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을 왜곡할 정도라면?

얼마 전 대부도 갔을 때 저희 모듬도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었지요..
사실 점심 때 먹었던 칼국수가 너무 많아서 그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판에 다시 먹거리를 찾아 먹었다는 사실이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생태..
생명..
결국은..
소박하게..
단순하게..
좀 적은 듯이..
느림의 철학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조개구이가 그 지역만의 먹거리도 아니었고..
그 가게 또한 지역민의 생계인지..
아님 요즘 조개구이집이 잘된다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유원지어서 더 잘되니까..
자본의 흐름을 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타의 이야기도 없이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먹을 판을 만들었던 선생님의 모습은 저로선 이해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었습니다.. 배가 무척 고평해서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아니기에 더욱 어렵습니다...

생태 나들이는요..
생명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따라가며 즐거울 수는 없을까..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다녀왔을 때 가슴 한 구석 따뜻한 그 무엇을 충만하게 담을 수 있는 무엇이어야 하지 않을까.. 곱씹어 봅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이 결과라면
그 과정을 생태적으로..
아름답게..
조금 느리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결과가 모두 자연의 흐름을 타는 생태 나들이를 기대해 봅니다.

스폰지 같은 투명한 아이들 앞에 서는 분이기에도..
너무나 그 '명성'이 자자해서 그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감히 이런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우리 몸이 자연입니다..
그 안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아이 안에도 우주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에도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적인 존재이지요..

자연에서 관계를 배웠습니다.
함께 엮히고 섞혀 어느 하나가 빛나가면 모두가 무너지는 그런 긴밀한 관계망..
그래서 서로 반드시 함께여야하는 그 '관계'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계의 다름 아니지요.
선생님과 저희들과의 관계 역시 '서로 살리는 관계'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전문가라 일컬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과 생태에 대한 부분은..
평생을 가도 인간은 모자랄 수밖에 없을테지요...
그래서 우린 함께 가야하나 봅니다..

역새글에 대한 유창희 쌤 답글 올립니다. [역새플, 2002-10-03,18]

전에 에코마당에 올려던 글에 대한 유창희쌤의 답글인데요..

처음 글을 올렸을 때 서버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컴의 문제였던 걸 좀 늦게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다시 글을 올렸는데..

유창희 쌤이 이런 답글을 올려주셨네요..

함께 읽어보는게 좋겠지요~

=====

아...

맞아요..

내 고민이 여기에 모두 담겨 있는듯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많이 떠들다 보니...

잇는 것이 많은것 같습니다.

역새플이 지적한 내용은 항상 고민으로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법정 스님의 글들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역새플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대로 그 책에서도 말하고 있더군요..

일을 많이 벌리지 말아라..

남 앞에서 많이 떠들지 말아라..

작은 것에 만족해라..

네가 무얼 안다고 지껄이느냐...

참으로 편해지는 말입니다...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하루 일하고 조금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또 무엇을 실천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요...

사실 이것이 그저 평범한 제 삶이라고 봐요..

제가 무엇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저 그 때..

제 철에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내고 알려주는 것 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나도 피라미, 칠판글, 쪽, 다래, 여뀌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꽃게를 먹었지요..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다른 생명을 살찌우는 먹이가 될것이라 생각해요..
저번에는 닭의 장풀, 해당화, 쪽부쟁이, 갯개미취를 뜯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아이들이 그거 뜯으면 안되는데 그러더군요.

내가 무엇을 모듬고
운동입네 하고 다니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욕심은 많이 부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취하지 않아요..
자가용, 비씨카드, 핸드폰, 선풍기, 청소기...
그것이 자라는 될 수 없지만...
오히려 편한삶을 살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덜 주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는 공동육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질 않았던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을 그저 보여 드린 것인데..
어쩌면 좋은 기회였던것 같아요..
언젠가는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공부에 어떻게 취지는지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주를 논하지만..
그전에 알아야 할것이..
우리 자신이 별것 아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오만하고 교만한 상징그림으로
지구 오존층이 파괴된다며 사람의 손이 지구를 가리고 있는 모습...
지구가 병들어 간다며 사람의 두손이 지구를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들과 똑 같은 하나의 생명일 뿐입니다.
아마 하루살이도 지구 환경이 오염되어가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런 포스터를
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고민과 생각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말을 해주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한 대여섯명 정도되는 친구들은 저를 아주 곤혹스럽게 할 정도로 심하게 질타하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들을 때는 무안하고 멋적지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못보는 단점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런 친구중 제일 심하게 이야기 하는 친구...

이곳을 만들어 준 사람입니다.

하여튼 얼굴 뜨거운 말을 들어 내일 아침 어떻게 눈을 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가 맑아짐을 또한 느낍니다..

그리고 부탁 한가지...

역새풀과 코딱지는 행사를 통해 공식적인 관계로 몇번 만난것의 평가 해 주셨으니..

다음에 한번 만나서..

아니면 글로 계속해서

마음속의 대화를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역새풀을 잘 몰라요..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삶의 방식은 어떤지..

생각과 생활의 모습은 어떤지...

그런것을 많이 알면 서로 이해가 쉬워지고..

대화나누는데 도움이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좋은 글을 많은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하지 지우지는 않습니다.

전번에 개구리 눈에 붙인 현수막을 보고

코딱지에게 심한 질책과 놀림을 하는 글도 공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개구리는 자료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역새풀 글도 계속에서 앞창에 뜰 수 있도록 당분간 지속시킬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알찬 지적에 대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심상옥선생님과 생태세미나) [억새풀, 2002-09-07,61]

시원한 바람도 불고..
어느새 부분부분 노란빛 도는..
겨울을 준비하는 은행나무를 보며..
여기가 어딘가..
섬표하나 걸고 생각의 나무를 키워보는 요즘입니다.

심상옥 선생님과 7일 늦은 일곱시에 사무국에서 생태세미나를 가졌지요.
다들 시간이 안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동산, 딸기, 풀피리, 모자, 시금치, 억새.. 선생님까지 합이 일곱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주제는 갯벌과 하천입니다.
이야기 흐름은..
나들이 때의 옷차림, 진행방법, 마무리까지 구체적이면서 근본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었지요.

우선 갯벌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갯벌하면 엄마고 아이들이고 우선 흙, 벌이 먼저 떠오르구요.. 흙을 먼저 떠올려서 그런가
흙놀이쯤으로 갯벌체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흙장난 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갯벌은 흙을 느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맨발로 걷기에도 조개껍
데기나 다른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 발을 다칠 위험도 있구요.. 흙을 느끼려면 차라리 논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하네요..

그래서 옷을 많이 버리는 나들이가 되어서 예전에는, 아니 요즘에도 여러 곳에서 버릴 옷을
입고 오라고 하지요? 공주님 같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오는 것보다야 낫긴 하지만 엄마들
이 어차피 버릴 옷인데 별 짠득 묻힌 옷 빨기도 귀찮고 해서 버리라고 한다네요.

해서.. 문제는 현장 나들이에서 적게는 몇십명, 많게는 백명이 넘는 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
만 그 중 다수의 아이들이 옷을 나들이현장에 버리고 간다고 했을 때 생태 나들이에 와서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고 간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낚아서 버려도 되는 옷과 함께 벌흙이 묻어서 더 버려야 한
다는 생각이 심어지면 아이들에겐 벌 흙도 낚은 옷가지처럼 더럽게 여겨질 수 있다는 생각
이 드네요. 쓰레기처럼.. 그랬을 경우, 갯벌 모래와 흙은 엄청난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
는 소중한 귀한 것이라는, 그 자체로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감성은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런 연유로 되도록이면 옷은 빨기 쉬운 나일론
소재의 긴 바지. 이유는 빨기 쉽고, 반바지가 아닌 이유는 썩크림 등을 바르지 않게 하기 위
해서지요.. 그리고 두터운 양말. 조개껍데기에 베일 염려가 심분 있어 아이들은 신겨야 하겠
지요..

그리곤 공동육아의 특성상 아이들의 연령이 낮으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의 옷에 묻은 벌흙을

최대한 털고 빨아서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벌 흙도 도시에 가면 오염물질이 될 수도 있다가.. 자연에서 얻은 것은 대부분 거기 놔두고 오는 게 맞겠지요.. 이 모든 것은 부모나 교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아이들과 함께,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느낄 수 있게요.

자~ 옷차림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갯벌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어디를 가더라도 나들이 때의 교사의 모습은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생물을 보았을 때 ‘으~~ 징그러워’ 하는 표현들.. 아이들은 스폰지 같은 존재인데.. 교사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갈 수 있을까.. 생태적 감성, 모든 것이 살아있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귀한 생명들이라는 것의 다름아닌 그 감수성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글귀가 생각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갯벌까지 가는 데는 이런 것들이 살아요..

우선 해안가에 사는 육상 동식물들.. 다시 말해 해안가 숲이 되겠네요.. 종에서 그리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종이라도 그 모양새가 조금씩 다를 수 있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잎이 더 두껍고 나무들 키도 좀 작고 굵었지요.. 식물들도 환경이 바뀌면 살기위해 모습을 적절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한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요.. 해서 아이들과는 나뭇잎 떨어진 거 주어서 만져도 보고 다른 잎들과 비교도 해보고.. 느낌을 가져갈 수 있지요..

좀 들어가면 모래밭이 나오는데요..

좋은 곳은 갈대 밭이 있다고 하네요.. 모래 밭에도 뿌리를 내리고 사는 애들이 있는데 손으로 살짝살짝 모래를 흠어보면 그 뿌리를 함께 볼 수 있다고 해요.. 식물의 전체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현장이지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묻어주는 것 까지.. 여기엔 참방게라는 것이 구멍을 파고 사는데, 손가락 넣기를 하면 재미도 있고 느낌도 새롭다고 합니다. 갈대밭 뿌리도 느껴볼 수 있구요..

모래밭 지나 바로 모래자갈이 나옵니다. 모래밭 보다는 면적이 많이 적지요..

여기선 갯강구, 사각게 등을 볼 수 있는데요.. 갯강구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갯강구 잡기놀이도 할 수 있지요. 갯강구가 친구가 되어 그야말로 자연과 함께 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돌밑에 숨어있는 사각게와는 숨바꼭질 놀이도 할 수 있어요..

모래자갈이 끝나면 진흙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보이는 것이 가장 많긴 한데 우선은 이곳을 지나치고(이유는 이따 이야기 할게요.)

모래밭이 나올 때까지 견습니다.

이곳에는 조개류가 많구요.. 칠게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집 갯지렁이와 그냥 갯지렁이도 볼 수 있지요.. 집갯지렁이의 집도 볼 수 있답니다.

이 때는 숲 속에 사는 지렁이와 갯지렁이의 차이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곤 아까 그냥 지나쳤던 진흙 밭으로 가서 민챙이, 고동류, 밤게, 서해비단고동 등을 맘껏 볼 수 있게 합니다. 민챙이 지나간 손가락으로 따라가보기, 서해비단고동이 지나간 자리 따라가기, 밤게 암수 구별해보기 등 아이들과 거기 사는 녀석들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놀이를 해보는 것이 좋겠지요..고동을 손등에 얹어 얼굴을 내밀고 기어 다닐 때까지 함께 기다려보기도 하고, 슬금슬금기어가는 그 느낌을 느껴보고, 게들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며 작은 움직임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명이란 것을 가슴하나 안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생태적 감성을 일깨우는 놀이가 아닐까 합니다. 꼭 잡아서 봐야하고, 만져봐야하고, 자극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그 흐름에 맞추어서 가는 놀이를 만들어 내는 일.. 아이들과 함께여서 더욱 중요한 일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아이들이기에 뭔가 하나는 꼭 가져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 모두들 아시겠지만요.

해서 가장 잡기 쉬운 밤게를 하나씩 가져갑니다. 맘에드는 걸로..

그리곤 갯벌 다 나가서 시작 부분에서 ‘계경주’를 합니다.

이건 생명이니까 ‘놔주자!’ 하며 아이들에게 당위적으로 설명을 해봤자 아이들은 그것을 ‘생명이니까’가 아니라 ‘선생님이 못 가져 가게해서 못했다.’ ‘기분 나쁘다’로 맘에 남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계경주’ 하자는 말에 아이들은 모두 신나서 집중을 할 것이구요.. 헌데 밤게는 놔 주어도 마구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앞으로 가지 않고 모래를 파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아이들과 이유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왜 앞으로 안가고 땅을 팔까?’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위협을 받으면 숨을 곳을 찾게 되는 것이 본능이지요? 꽤 먼 곳까지 타의에 의해 끌려온 밤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살기위해 밀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과 흙을 킁킁이 쌓아서 성을 만든 후 밤게를 그 성에 놓아주면 요녀석들 쪽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때는 정말 알 수 있겠지요.. 밤게는 이순간 아이들과 친구가 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지요..

지금까지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갯벌은 해안가부터 약간씩 모래던지, 흙이던지 그 차이가 조금씩 있다구요.. 그래서 사는 애들도 눈에 띄게 다르구요.. 그래서 뭔가를 잡아서 해안가까지 가져다가 놓아준다는 것은 기실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뭔가 가져가려는 맘이 먼저 동하는 것이 있지요.. 당연하단 생각이 우선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사가 얼마나 유연하게 풀어내는냐에 따라 아이들 모습도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참, 갯벌은 5월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때는 짝짓기 철이래요.. 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파괴가 되는 셈이지요..

그리곤 하천 이야기를 이어갔네요..

기억하시겠지만 하천은 심상옥 선생님과 4월 현장학교 때 한번 했구요..

몇몇 분들은 천안 답사가서도 한번 계곡을 잠깐 해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하천 탐사 때 먼저 해야할 것들,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나갈게요..
장소의 문제부터 이야기할 하자면.. 우선 어디든 다리미를 찾아라!
그들도 있고 해서 짐을 부리고 관찰하기 좋다 하네요..

그리곤 옷차림과 관련한 것인데요..

맨발에 샌들은 무척 위험하다. 왜냐면 발톱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샌달을 신으려면 양말도 꼭 신기.

하천은 돌이 많지요? 현대 처음엔 아이건 어른이건 돌 위에서 걷는 것이 무척 힘이듭니다.
굉장한 균형감각이 필요한 일이지요.. 해서 그 주변 돌틈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먼저 관찰하면
서 돌위 걷기에 익숙해집니다. 아마 돌에 붙어있는 잠자리 유충 껍데기나 하루살이 유충 껍
데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연후에 돌 밑 수서 곤충을 보는데요.. 하루살이 유충, 강도
래 유충, 날도래 집, 각다귀, 먹파리 유충, 거머리 등을 볼 수 있구요.. 계곡 쪽으로 올라가면
꼬리치레도롱뇽, 플라나리아, 가재 등을 볼 수 있지요.. 열새우와 부식되고 있는 잎맥만 남은
나뭇잎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돌이 많은 곳이어서 탐사 후에는 아이들과 돌 쌓기 등 돌을 갖고 다양한 놀이를 하는 것도
좋지요.. 강도래 닳은 돌 찾기, 엄마얼굴 닳은 돌 찾기, 친구얼굴, 갈겨니, 버들치, 모래무지,
등등 닳은 것 찾기를 보물찾기 형태로 놀이를 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그리곤 물안경을 갖고 물 속에 사는 애들의 모습을 보는거예요..

그 다음 유리로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바다가 투명한 것중 좀 넓은 것을 가지고 물 밑을
들여다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물고기도 더 자세히 볼 수 있구요.. 다른 수서 곤충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답니다.

어딜 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길 왜 왔다’ 하는 고민들을 이어나가는 것이란 생각
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 이러한 과정들을 이어나가는지 끊임없이 고민해나가다 보면 그 답
이 조금씩 보이리란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결국엔 근본과 닿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

심상옥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교육은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다.

선택은 그 후 아이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에게 선택을 가르치고 있다..

‘목표의 올바름을 옳이라고 하고..

목표에 이르는 과정의 올바름을 美라 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올해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교육을 고민하면서..

교육이란..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의 아름다움..

꽃의 아름다움..

풀한포기의 아름다움..

생명의 아름다움..

모든 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생태학적세계관-환경부 [맨발, 2002-09-17,13]

생태학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행동에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것이다.

생태학적 세계관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 그리고 풍요로운 소비사회를 지향하는 현재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관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물질적 욕구의 절제, 정신적 가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대안적 세계관이다.

생태학적 세계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학적 세계관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에서 자연중심주의(ecocentrism)으로의 시각전환을 뜻한다.

둘째 생태학적 세계관은 '수학적, 기계적' 이성에 앞서 '미학적, 예술적 이성'을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본다.

셋째, 생태학적 세계관 안에서는 자기중심적 배타성이 사라지고 공동체 중심적 협동이 살아난다.

넷째, 생태학적 세계관은 물질적 소유나 쾌락적 경험보다는 내면적 체험과 의미 구성을 강조한다. 생태학적 세계관으로의 개종에는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체험'(inner, subjective experience) 세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Gough, 1987: 52쪽, 54쪽).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살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와 교감하며 협력한다(Thomashow, 1995: p.4)

생태학적 세계관으로의 개종을 위해서는 삶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생활양식의 변화가 요청된다. 환경문제가 결코 여러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듯이 생태학적 개종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청계산에 꽃잔치가 열렸네요~ [억새풀, 2002-09-19,22]
따라와 보세요~

쩍 벌어져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생각만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네~ 다래덩굴

개미취? 너, 진짜 이름이 뭐니?

갈대와 억새를 구별해 보세요~ 누가누구게?

가을맛이 난다~ 슬슬 붉은 기운이 도는 명아주..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봄부터 가을까지 주욱 우리곁에 있는 친구같은 꽃~ 애기똥풀..

짚신에 묻어 멀리멀리~ 잎도 짚신결이네요~ 짚신나물..

고들빼기? 씀바귀? 봄에 봤던 녀석보다 훨 크네요~

확대경 속에 비춰진 꺾여진 꽃들..

차례대로 맨 위부터 머느리 밀싹개, 고마리, 이질풀, 짚신나물..

시집살이가 이걸로 밀을 닦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했다네요~ 머느리 밀싹개..

물가에..손대면 툭~하고 터질것만 같은 물봉선..

여뀌..

가지에 털이 나서 털여뀌..
꽃봉오리도 솜털같은 털도 햇볕에 눈이 부시다~

가을의 백미네요..
산속의 작은 연꽃..
고, 고운 자태가 마치 연꽃 속에 심청이 같구나..
마, 마음속에 어여쁜 꽃하나 심어볼까..
리, 이름만 조용히 불러본다..

어떠셨나요?
청계산의 가을이..
이렇게 예쁜 꽃들로 장식될 줄은 몰랐지요?
직접 보는것과 확대경을 통해 보는 것도 사뭇 다르단 생각이 드네요..

살아있는것과 죽었있는것의 차이라고 할까..

곧이어 우리들의 모습을 올릴예정이에요..

생태교육은...(자체세미나 발제문) [맨발, 2002-10-03,17]

생태교육의 필요성- 강오영화(맨발)

생태교육은 과연 뭘까라고 물어본다.

생태는 뭐고 교육은 어떠한가 하는 본질적인 개념에서부터 들어가본다.

생태는 쉽게 이야기하면 말그대로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다.

어떤 조건과 관계에서 생물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가는 전반적인 흐름을 눈여겨보면 그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알수있게 된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생물인 사람을 보면 꼭 필요한것들은 뭘까

햇빛 물 산소 음식,,,등등의 조건들이 필수적인걸 본다.

물론 여기도 어떤 질들을 따져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한가지라도 부적절하면 바로 죽을 수 있다. 만약 산소가 필요한 양에서 부족하다면,,, 이렇듯 생물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것들이 있어야 제대로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다. 부적절하다면 많은 질병들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 증거로 요즘 환경병이라 불리는 것중에서 대표적인 병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호르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렇듯 생물이 살아가는 데 적절한 것들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간은 자연속에서 자신이 곧 자연임을 망각하고 자연과 분리되서 자연을 그저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서 밖에 활용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자연이 파괴되어갔고 인간 역시 자연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즉, 인간은 자연이 스스로 갖고있는 정화능력을 벗어난 많은 폐기물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재앙을 그대로 인간이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오만함으로 자연을 벗어남으로써 갖게되는 수많은 피해들은 곧 가해자인 인간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생태계를 이루는 기본인 생물들의 모든 관계는 이어져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놓친 결과이다. 그렇다면 다시 생태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그건 다시 관계맺기를 하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 인간과 인간이 분리하고자 했던 관계들을 다시 보는 것이다. 가해자였던 인간이 인간외의 생물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객체로서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방식을 만들어내야하는 것이다.

인간만이 살것처럼 했던 인간만이 최우선의 가치를 두었던 것에서 내려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을 동등하게 살아가야할 생명체로서 다시 인식하는 것이다.

이제 인간만의 편리를 위해 살기보다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활에서 인간 역시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건 내똥이 한낱 폐기물이 되기보다 다시금 나에게 생명의 밥이 되는 지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지금은 사라진 자연순환적인 생활방식들을 다시금 생각해봐야할때다, 무엇을 향해 인간이 걸어왔는지...,문명의 발달이 최선인지,,, 무엇을 문명이라 말할수있는지.. 지속적인 물음을 해가야한다. 왜냐하면 이제 환경이 곧 생존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겨우 깨달았기때문이다.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맺기에서 또한 함께 갈것들은 인간과 인간이 새롭게 관계맺기다.

인간들 역시 같은 중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하면서 생명체로서의 동등한 가치부여를 하지 못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늘 존재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성을 갖는건 인간외의 수많은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시점에서 동시에 바로 가장 가까운 인간들끼리에서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열을 가리고 나만을 위한 편리추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들을 하지않았는지 다시 새롭게 생태적인 관계맺기를 해야한다..

어린이 집 현장학교 이야기1 [억새풀, 2002-10-07,15]

밤 12시..

맨발, 모자, 채송화, 억새는 공릉입구에서
홍원 연수원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낮에 예상했던거 보단 그렇게 으시시하진 않아서 금새 들어갔는데,,
산자락이어서 가을 밤 공기가 청량했더랬지요~

홍원 연수원에 들어가니 '쿵따리 샤바라 뽀뽀뽀뽀~~"
진하게 춤판이 벌어졌네요..
표현예술 진행중인가봐요..

우리는 말끔한 숙소(사실 찜질방과 다름없는)에서 배를 깔고 생태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진
지?하게 시작했네요..
밖은 천둥번개에 비가 으시시하게 오고 있었고..

표현예술이 마저 끝난 현장학교 교사들은
방마다 모여 보리곡차를 한잔씩 하는 중이었지요..

대충 일정을 잡고 즉흥성에 비중을 많이 두고는
얼른 보리곡차를 들이켰답니다..

새벽 3시 정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심 현장학교 교사들이 곡차를 많이 마시기를 바랬지요..
내일은 좀더 가볍게?하고 싶다는 아주 알뜰한 심사를 가지고요.. ㅎㅎ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린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잠이 들었네요.

어김없이 아침이 밝았구요..
비도 부슬부슬 내렸네요..

비오는 숲..

색이 변하고..
잎을 떨구고..
여백있는 하늘과..
빈 가지가 어우러져..

마음까지 평온해 지는 느낌..

나뭇잎 위나
가지 끝이나

방울방울 맺힌 물방울 속에
세상이 들어있네요..

아이들 눈망울과 다르지 않네요..

그 맑고 순수함이란..

감탄에 감탄을 하고는 다시 들어와서 또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이 일을 어찌할꼬~

이크, 진행 이야기는 다음편에!

공동육아와 생태나들이

발제 : 둘리엄마

공동육아의 교육이념

- *공동체 지향
- *자연친화
- *통합과 평등
- *자율과 자발성 존중....

왜 나들이인가

-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탐색에 대한 욕구를 발산할 수 있음.
- *학습에 대한 자율성과 자발성, 능동성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쉬움.
-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기르며 풍부한 감성을 키울 수 있음.
- *함께 하는 나들이를 통해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마음가짐을 기를
-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과 환경,문화등에 대한 접근으로 경험 축적과 인지발달 촉진

생태나들이의 마음가짐(자연과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태계-어떤 지역에 사는 모든 생물과 그 지역 내의 비생물적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그 속에서 물질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기능적인 계.

*인간도 자연의 작은 부분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방식(자연에 대한 인간의 선입견, 편견) 지양하고 자연과 인간이 상생한다는 마음을 갖는다.

*자연계의 순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세를 갖는다.

*머리로, 지식으로 먼저 다가가는 자연이 아니라 몸과 감각으로⇒감성으로⇒이성과 지식으로 다가간다.(표피적으로 이해하는 자연이 아닌 오감과 상상력, 창의성을 갖고 자연에 다가서 보자)

*자연의 질서와 자연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예-어린 물고기는 잡지 않고 놓아주기, 숲에 갈 때는 화려한 옷과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숲에 사는 생물을 자극하지 않는다.등등)

*인간위주의 편리함, 물질만능적이고 일회적이며 소비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미래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해본다. 생태계의 파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계층간의 빈부격차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빈부격차가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서구적인 기준에 따른 가치관을 무차별하게 보편화, 세계화시키려는 것이 전지구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생태 나들이의 활동방향

- *아이들을 고유한 인격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자발성과 자율성을 계발하는 자유로운 나들이가 되게 한다.
- *힘들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생태 나들이가 아니라 쉽고 구체적이며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나들이가 되도록 한다.
- *생태나들이는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활동부터 비롯된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맡으며 생태적 감수성을 기른다.
-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로 돕고 힘을 모으는 협력활동을 장려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익히게 한다.
- *나들이는 다른 활동영역과 연계성 있게 장기적인 계획과 구도를 가지도록 하며 공동육아와 생태교육 이념에 맞게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구성한다.
- *나들이를 통해 일과 놀이와 학습이 통합되고 지역과 어린이집이 만나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한다.

나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 *교사는 사전답사, 준비를 통해 나들이 장소의 지형지물이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 둔다.
- *사전에 아이들에게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수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한다.(예 -쓰레기 버리지 않기, 산은 온갖 생물들의 집)
- *나들이를 떠나기 전에 간단한 모둠을 통하여 오늘 나들이를 어디로 갈 것인지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호기심을 유발 시켜주고 아이들의 의향이나 반응을 살피며, 나들이의 안전수칙 및 준비상황을(용변 미리 보기, 옷차림과 신발점검) 점검하도록 한다.
- *나들이는 익숙하고 가까운 곳부터, 처음에는 짧은 시간에서 차츰 시간을 늘려가며,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감안해가며 시작하도록 한다.
- *어린이의 연령, 발달상태, 컨디션, 그 날의 날씨 등을 충분히 감안한다.
- *교사는 기본준비물(의약품, 휴지, 비닐봉투, 물수건, 수건, 컵, 물, 기록장, 돛자리, 비상금,휴대폰)외에 아이들의 연령과 그때 그때의 나들이 상황에 따른 추가준비물을(아기기저귀, 여벌옷, 돋보기, 관찰수첩, 각종 도감, 간단한 간식등) 미리 챙겨둔다.

나들이의 안전수칙

- *교사 1인이 인솔할 경우와 2인이 인솔할 경우, 3인 이상이 인솔할 경우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인솔위치를 적절이 배치한다.
- *자동차가 지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한쪽으로 걷고 비켜서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 *나들이를 떠나기 전 짝을 정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서로의 안전과 위급상황을 대비하도록 한다.(혼자서 동떨어져 가다가 길을 잃는 일이 없도록)
- *교통신호등을 보는 방법, 좌측통행, 비탈진 계단에서 뛰거나 밀치지 않기 등을 미리 알려준다.

*나들이를 떠나기 전과 돌아온 후, 나들이 장소에서 터전으로 출발하기 전 정해진 장소에서 용변을 꼭 보도록 한다.

*교사는 떠나기 전에 아이들의 인원과 건강상태를 반드시 점검한다.

나들이 즐기기

*나들이 목적지 가는 동안을 가능하면 충분히 즐기도록 한다.

길가에 핀 꽃, 스치며 만나는 동네 사람들,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 등 아이들이 관심 갖고 탐색하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해줄 줄 아는 여유를 갖도록 한다.

*사전에 나들이에 관련된 그림책을 미리 보여주거나 나들이 장소의 특징 등을 미리 알리고 호기심과 기대를 갖게 할 수도 있다.

*걸기를 싫어하거나 지루해 하는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 나누기, 수수께끼, 걷는 방법 달리 하기(어디까지 빠른 걸음으로, 어디서부터는 천천히 등) 등을 통해 즐겁게 나들이에 임할 수 있게 한다.

*자연물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 것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아무데나 용변 보지 않기 등을 생활화하며 자연물을 관찰하거나 이용할 때는 가급적 생명 있는 것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바닥에 떨어진 것이나 죽은 것을 이용하며, 생명 있는 것을 활용할 때는 자연계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자연물을 대할 때는 냄새맡고 듣고, 맛보고, 관찰하고 만져보고 5감을 통해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꼭 필요한 지식이 아닐 경우 외에는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성급하게 미리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같은 곳도 여러 번 반복해서 다니면서 계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한다.

*자연물을 확대해보기, 비교해보기, 모아서 꾸며보기, 소꿉놀이,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하기, 등을 통해 자연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체득하도록 한다.

나들이에서 돌아와서

*나들이에서 돌아오면 손발, 얼굴을 깨끗이 씻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나들이 갔다 돌아와서도 이야기 나누기, 연계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체험에서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심화, 확대, 첨가 할 수 있도록 한다.

* 나들이에서 수집한 자연물은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예- 자연물을 이용한 놀잇감 만들기)

*나들이의 경험을 날적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알리고 가정과 어린이집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교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나들이 시간, 장소, 활동내용, 아이들의 반응, 이후 연계활동 등을 평가하여 보다 나은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일지에 기록을 남겨 이후 나들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나들이에 임하는 교사의 태도와 역할

- *나들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
- 자연과 생물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린다.
- *교사가 먼저 나들이를 즐겨라
- *나들이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정보를 입수하며 사전답사를 가도록 한다.
- *문화와 예술, 자연을 아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예-작은 산 살리기 운동)
- *교사의 지도와 통제를 최소화하라.
- *나들이의 경험을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한다.
- *나들이 진행시 융통성을 갖는다.(예-비 오는 날도 나들이는 가능하다)

나들이 활동의 분류

1)장소에 의한 분류

- 1.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알아 가는 생태나들이-야산,공원,강변,약수터등
- 2.문화 나들이-지역사회의 다양한 역사 및 예술,사회생활에 관련된 나들이-전시장, 박물관, 연극공연장,영화관,고궁,유적지,도서관등
- 3.지역사회와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나들이- 시장,슈퍼,문방구,사진관,떡집,과출소,소방서,병원,은행,동네 놀이터, 학교, 동물병원 등

2)활동에 따른 분류

- 1.체험중심 나들이-오감을 이용한 나들이-꽃냄새 맡기, 나무껍질 만져보기, 나무에 물 올라오는 소리 듣기, 흙장난 등
- 2.탐구활동 중심 나들이- 여러 애벌레의 겨우살이 알아보기, 개미집 관찰하기, 텃밭 가꾸면서 식물의 성장과정 알아보기 등

3)소요시간에 따른 분류

- 1.일상적 나들이-대개 10시-10시 반 사이에 나들이를 떠나서 12시 전후에 터전에 돌아오는 거의 매일같이 이뤄지는 나들이를 말한다. 터전과 가까운 지역내의 야산, 놀이터,학교 운동장등을 자주 찾게 되며 일상생활과 연결된 나들이(시장, 은행등)도 자주 간다.
 - 2.긴 나들이-일상적 나들이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는 나들이를 말하며 차량을 이용해 먼 곳으로 가기도 한다. 일상적 나들이보다 체험과 탐구가 좀더 심화될 수 있으며 도시락을 지참하기도 한다. 각 터전상황에 따라 주 1회는 편의상 긴 나들이라 하며 월 1회를 가는 경우를 먼 나들이이라고 한다.
- 긴 나들이 때는 각 연령별로 나누어 가는 경우가 많으며 먼 나들이는 전체 연령통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나들이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피로를 풀기 쉽도록 금요일에 주로 진행한다.

긴 나들이와 먼 나들이의 주의 사항

- * 평소보다 준비와 계획을 세심하게 하며 만약 있을 수 있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아

이들의 건강과 옷차림 등을 보다 꼼꼼히 챙기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며 반드시 아동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은 이름표를 챙겨준다.

*사전에 교통편을 확인하여 차량아마를 이용할 경우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를 각기 대비한다.

*어린 연령일수록 차량을 이용한 이동시간을 짧게 한다.(가능하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통합으로 나들이를 갈 경우 형,누나들이 동생들의 짝이 되어 도우미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터전에 돌아오는 시간은 연령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절한다. 그러나 점심시간이나 낮잠, 휴식시간을 고려하여 조절하도록 한다.

3. 터전에서 하룻밤 지내기와 들살이

터전에서 하룻밤 지내기는 아이들간의 우의를 다지거나 터전생활에 적응하기, 들살이에 대한 사전 적응하기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거나 한 학기, 또는 한해를 마감하는 활동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늘 생활하던 친구와 집을 떠나 하룻밤 자보는 것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보다 돈독해지거나 자립심을 북돋아주는데 효과가 있다.

들살이는 아이들과 교사의 친밀감과 신뢰감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대개 5세정도의 연령부터 방과후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준비에서 평가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며 교사의 사전답사는 필수적이다.

주제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들살이가 가능하나 어린이들의 연령, 들살이 참가 경험 등에 따라 소요일수와 차량 이동시간 등을 잘 안배하도록 하며 교사 2인 이상이 진행되는 것이 좋다. 또 평상시 나들이와는 달리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들살이 가는 곳의 지역적 특색, 고유함을 최대한 활용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상은 생태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 생태나들이 모듬원들의 나들이 경험을 정리한 것과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나들이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태계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맺기와 실천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숲으로의 나들이(방과후 워크샵)

봄, 가을활동: 세밀화그리기, 사진찍기, 돋보기관찰, 도감보고 찾아보기, 탁본뜨기

준비물: 전지가위, 맥가이버칼, 루페, 돋보기, 모종삽, 칼, 가위, 네임펜, 스카치테이프, 본드, 성냥개비, 이쑤시개

1. 마음열기

- 자벌레놀이로 처음만나는 서로의 마음을 두드려본다.

♣ 눈가리개 애벌레

눈을 가리고 애벌레 모양처럼 뒤를 이어 앉는다. 애벌레의 여러 가지 발을 생각하도록 하여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야 함을 알도록 한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앞사람에게 의지하고 뒷사람에게 힘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한다. 이러한 눈가리개 게임은 아동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활동만이 난무하는 현대에 있어서 신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조심성, 협동성을 키워줄 수 있다. 목표지점까지 도달하면 무언가 보상이 되는 것으로 강화를 줄 수 있다.

2. 관계에 대하여

- 인간끼리의 관계도 그렇지만, 자연과의 관계는 참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감으로 느끼는 것, 몸과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3. 소리지도

-소리지도 만들기

숲 속 깊이 자리 앉아 조용히 눈감고 들리는 소리를 느낌으로 표현해 봅시다. 숲 속에선 사방에서 소리가 들린답니다. 모듬원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앉아 자기를 중심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에 그 소리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되도록 언어 표현을 자제하고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다양한 소리만큼이나 다양한 표현이 나올 것 같네요.. 나중에 서로 이야기하며 맞추어 보면 무척 재밌을 것 같아요.

4. 자연물을 이용한 활동

- 생태적인 물음/ 자연물을 이용한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생태적이며, 이후 자연물은 어떻게 할것인가?

5. 우리가 만나게 되는 친구들

- 산초나무, 진달래, 개나리, 철쭉, 단풍,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 자귀나무, 미모사, 애기똥풀, 고마리, 생강나무, 날도래

6. 마무리

- 자연물을 이용한 활동 / 느낌나누기 / 평가서작성

7. 이걸 나들이의 센스

하나, 모종삽- 죽은 동물 묻어주기, 갑자기 불일붙 때 구멍파기로 유용/ 둘, 관찰통- 페트병으로 만들거나 형겅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들고다니면 수집물을 넣어다닐수있어 좋다. 호주머니에 도토리물들어 화내는 엄마들 방지용... / 셋, 맥가이버칼도 좋으나 전지가위도 필요하다.

◆나들이의 순서

1. 사전답사
2. 자연에 대한 이용수칙
3. 모둠
4. 준비사항 체크
5. 기본준비물 챙김
6. 안전수칙 알려주기
7. 나들이 즐기기
 - 목적지보다 가는과정도 즐기기
 - 교사가 배려해야되는 부분(변화, 융통성)
 - 성급하게 알려주지 않기
 - 다양하게 이용, 활동
 - 수집한 자연물은 함부로 버리지않기
8. 마무리- 흠피, 날적이란 올리기
 - 교사회 평가

◆참고도서

1. 쉽게 찾는 우리꽃 봄, 여름, 가을, 겨울/ 현암사
2. 놀이도감, 공작도감, 모험도감 / 진선출판사
3.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우리놀이 백가지 / 현암사

▶염색에 대하여

- * 천연 염색이란 - 자연에서 존재하는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에 의하여 염료를 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기 시작한 이후에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왔다. 현재는 합성염료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지만 오랜 세월 인간의 미적 욕구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존재해왔다.

* 천연염료의 특징 - 색상이 차분하고, 은은하여 매우 자연스러운 품위를 나타내며 변, 퇴색이 일어나도 안정된 색감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인체에 무해하고 종류에 따라서는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천연물질이므로 염색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줄일수 있으므로 실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될수 있다.

단풍나무잎 염색

1. 명반을 5% 정도 녹인 물에 염색할 천을 넣어 30분간 60도를 유지하며 주무른다.
2. 깨끗한 물에 한 번 행구어 준비된 염액을 넣는다.
3. 염액에 넣어서 역시 60도를 유지하며 30분간 주무른다.
4. 맑은 물이 나올때까지 행구어 그늘에서 건조한다.

-염액준비과정 -

1. 붉은 단풍잎만 따서 모은다.
2. 단풍잎을 깨끗한 물에 한번 행구어 물을 넉넉히 붓고 끓인다.
3. 체에 걸러서 염액으로 사용한다.

굴 껍질 염색

1. 굴껍질에 물을 넉넉히 부어 30분 정도 끓여서 따라두고,
2. 다시 물을 부어 30분 정도 끓여서 거른다.
3. 첫물과 두 번째 물을 섞어서 염료로 사용한다. 체에 가제 손수건 등을 깔고 걸러서 사용하면 얼룩이 적어서 좋다.
4. 충분히 빨아서 젖은 천을 염료에 재빠르게 풀어 넣는다. 천이 뭉쳐서 들어가면 얼룩이 생길수 있다.
5. 30분동안 60도 정도를 유지하며 주무른다.
6. 깨끗한 물에 한번 행구어
7. 동 매염제 2%를 녹인 물에 염색된 천을 균일하게 넣어 15분정도 주무른다(후염과정)
동 매염을 하면 본래의 굴껍질 색에서 다르게 변색된다.
8. 매염이 끝나면 맑은 물이 나올때까지 행구어 그늘에서 건조한다.

* 자연 친화적인 노래 놀이 1

이 원고는 제 4회 공동육아교사대회에서 `자연에서 놀 수 있는 놀이'로 한희정 선생님이 하신 강의 내용입니다. 교사대회에서는 강의를 듣고 교사들이 놀이를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주위가 온통 놀이감이었다. 방아깨비, 개구리, 올챙이, 가재, 소리쟁이... 동물이건 식물이건 모든 것이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또 새로운 놀이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싸구려 상업주의에 물든 놀이에 아이들이 쩌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놀이문화에 대한 반성은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자연 친화적인 노래 놀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연 친화적인 노래 놀이"란 무엇일까? 물론 자연을 벗 삼고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놀이이다. 그러나 단순히 예전처럼 자연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도시와 시골의 환경 자체가 너무도 많이 다르고, 생산 양식의 변화는 대량화, 산업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자연을 벗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자연 자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자연 친화적인 노래 놀이"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환경운동의 커다란 한 줄기가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점으로 통일된다는 데에서 자연 친화적인 노래놀이의 의미 찾을 수 있다. 자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놀이이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던 놀이라도 그것이 친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반자연적인(지금의 조건에서)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여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잎을 따서 모으기'라는 활동을 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주위의 많은 나무의 잎과 풀잎들이 상처를 입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같은 교육적 효과를 지니면서도 주변 자연을 덜 훼손하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놀이를 생각해 보자. 앞의 놀이의 경우에는 `주위에서 가장 큰 잎과 가장 작은 잎을 찾아보자'로 대체하면 자연을 덜 훼손하면서 관찰력이나 주변에 대한 관심, 다양한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실에서 하는 자연 학습은 자연을 대상화시켜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자연 친화적인 노래 놀이는 자연과 특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속에서 살아있는 생명 하나하나를 느끼고 함께 숨 쉴수 있도록 하는 놀이들이어야 한다. 자연으로 나갔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개구리만 잡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활동을 안내하면서 농치기 쉬운 것들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 설명은 적게, 느낌은 많이.....

과거의 놀이를 살펴보면 자연물의 모양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노래 놀이가 많다. 이는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나타나는 모방심리 때문이다. 또한 주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어 이것 저것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물어 보면서 관찰력을 키워나가고 그를 그대로 흉내내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노래놀이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이나 활동을 아동 스스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돕고 주변에 대한 이해와 자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예를 들어 찢득이 노래 같은 경우 찢득이의 생태를 제대로 관찰하고 노래말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찢득이가 더운 여름, 소에 붙어서 피를 빨아 먹는 느낌, 오뉴월 염천이라든가 찢격, 질끔 등의 표현이 주는 사실감, 이를 생활세계에 적용해서 주변에 찢득이 같은 친구를 어느정도 골려 주면서도(이지메시키는 것이 아닌) 도와주고 변화시키고 같이 하려고 활동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전래 동요나 놀이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그의 발굴, 정리 작업이나 교육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작업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또한 현재 나오고 있는 창작 동요들은 어떠한가도 한번 살펴 보아야 할 과제를 제시해 준다.

자연에 관한 노래는 참으로 많지만 전래 동요를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전래동요는 어린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부르는 노래로 뚜렷하게 지은이도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그러므로 전래동요에는 어린이들의 의식구조와 생활모습, 그리고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 더구나 전래동요는 대부분 2개나 3개의 음만으로 다양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전래동요야말로 우리 민족음악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값진 문화 유산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래동요는 전래민요와 마찬가지로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요즘 어린이들은 그 옛날 어린이들이 지녔던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래동요는 주제별로 꿩, 황새, 방아깨비, 부엉이 등을 소재로한 '동물동요', 모래집을 쌓거나 술래잡기를 할 때 부르는 '놀이동요', 말의 첫 글자나 끝 글자를 이어가며 부르는 '말머리 잇기요'와 '말꼬리 따기요' 그리고 등짐 장수나 곰보, 오줌 싸개 등을 놀리며 부르는 '놀리는 동요' 등이 있으며 특히 별, 해 달을 소재로 한 '전체 동요'가 다수 있다. 이같은 전래동요들은 가락이 단순하나 그 소재가 풍부하여 옛날 어린이들의 놀라운 상상력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의식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 소중한 자료라 하겠다.

♣새는 새는

새는 새는 남게 자고 쥐는 쥐는 궁계(구멍에) 자고
 우리 곁은 아이들은 엄마 품에 잠을 자고
 어제 왔던 새각씨는 신랑 품에 잠을 자고
 꼬꿀 꼬꿀 꼬꿀 할때 영감 품에 잠을 자고
 납딱 납딱 송애 새끼 방구(바위) 밑에 잠을 자고
 미꿀 미꿀 미꾸라지 꿈계(진흙) 속에 잠을 자네

경상북도에 널리 퍼져 있는 동요이다. 이 동요는 잠을 잔다는 기본적인 어의 속에 갖가지 사물 현상을 병치 열거한다. 사물 현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따뜻하고 포근한 정서는 느낄 수 있는 노래다. 동요에서 의성어나 의태어가 발달한 것은 아이들의 예민한 감각을 키우는 데서 유래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동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민요의 기본형을 유지하고 있는 자료이며 복합적인 민요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원초적인 자료이다.

♣꿩

꿩꿩 장서방 자넨 집은 어텐공
 이산 저산 넘어서 잔술밭이 내 집일세

먹을 거는 많아도 총쟁이 때문에 못 살세
결걸 장서방 자네집은 어덴궁
이산 저산 넘어서 잔술밭이 내 집일세
먹을 거는 많은데 총쟁이 때문에 못 살세

뽕을 의인화해서 다룬 수법이 재미있다. 뽕을 소재로 한 가사 판소리, 민요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와 친근한 새이기 때문이고 뽕은 여러 가지 자료에 고루 등장한다. 경상북도 전래 동요 중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전래 동요 중의 하나이다.

♣부엌이

양식없다 부형
내일 모리 장이다.
술 시까 놓고 바래라

부엌이는 주로 배가 고프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묘사된다. 겨울철 춥고 배고팠던 시절의 인상이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마리(잠자리)

나마리 동동 파리 동동
저 건너 밭에 가지 마라
똥물 먹고 뒤진다.

잠자리를 잡을 때 부르는 동요이다. 결국 잠자리를 잡는 것이면서 날아가면 죽는다는 설정이 흥미롭다.

♣매미

이촉강 이촉강 이촉강 이촉강
맹맹 매애
매롱 매롱 매롱 매롱
맹맹 매애
들녘 들녘 들녘 들녘 들녘
애 애 애

계절의 변화에 따른 매미의 울음을 흉내낸 소리다. 가창자는 `이촉강'은 초여름의 매미소리이고 `매롱'은 한 여름의 소리이고 `들녘'은 늦여름의 소리라고 한다. 매미의 울음소리를 뛰어난 의성어로 표현하였다.

♣물고기

문 열어라 밥상 드간다
문 열어라 밥상 드간다
니캉 나캉 들이 먹자
얼싸 좋다

니캉 나캉 둘이 먹자
문 열어라 밥상 드간다
얼싸 좋다
니캉 나캉 둘이 먹자

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풀줄기에 꿰면서 부르는 노래다.

♣나무 풀이

가자 가자 감나무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옷 나무
짐치 가지 꽃 가지
맨드래미 봉숭애
카로 찢러 배나무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무 짐치 들어간다

주로 다리세기를 하면서 부른다. `아가리 딱딱 벌려라...`는 사실이 풀 썬 소리(작두질)과 비슷하다.

♣별헤는 소리

별하나 따서 홀테 망태 넣어서 계수 남게 걸고
별둘 따서 홀테 망태 넣어서 계수 남게 걸고
별서이 따서 홀테 망태 넣어서 계수 남게 걸고
별너이 따서 홀테 망태 넣어서 계수 남게 걸고
별다섯 따서 홀테 망태 넣어서 계수 남게 걸고
별여섯 따서 홀테 망태 넣어서 계수 남게 걸고
별일곱 따서 홀테 망태 넣어서 계수 남게 걸고
별여덟 따서 홀테 망태 넣어서 계수 남게 걸고
별아홉 따서 홀테 망태 넣어서 계수 남게 걸고
별열 따서 홀테 망태 넣어서 계수 남게 걸고

이 동요는 신화적 사고의 소산이다. 별을 많이 딸수 있다는 설정도 흥미롭다. 또한 이 노래는 숨을 쉬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헤아려서 불러야 오래 산다는 민속 신앙에서 유래된 동요이다. 여름밤에 마당에서 별을 보며 친구들과 어울려 부르는 노래로 숨을 쉬지 않고 빨리 부르는 쪽이 이긴다고 한다.

♣해야 해야

해야 해야 나오너라
김치국(김치국)에 밥 말아 묵고
장기(장고)치고 나오너라

여름에 개울에서 미역을 감고 놀 때 해가 구름에 가려지면 부르는 노래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자연에 관한 전래 동요들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지역에 따라 지역의 여러 특징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전래 동요가 잊혀지기 전에 찾아서 부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연 친화적인 노래 놀이2 에서 계속

* 자연 친화적인 노래 놀이 2

이 원고는 제 4회 공동육아교사대회에서 `자연에서 놀 수 있는 놀이'로 한희정 선생님이 하신 강의 내용입니다. 교사대회에서는 강의를 듣고 교사들이 놀이를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숲에 들어 가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살펴보자.

♣ 눈가리개 애벌레

눈을 가리고 애벌레 모양처럼 뒤를 이어 앉는다. 애벌레의 여러 가지 발을 생각하도록 하여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야 함을 알도록 한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앞사람에게 의지하고 뒷사람에게 힘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한다. 이러한 눈가리개 게임은 아동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활동만이 난무하는 현대에 있어서 신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조심성, 협동성을 키워줄 수 있다. 목표지점까지 도달하면 무언가 보상이 되는 것으로 강화를 줄 수 있다.

♣ 몇가지 색일까?

주위를 둘러보고 몇가지 색인지 알아 보도록 한다. 너무 오랜 시간을 주기 보다는 3분 정도로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벌레의 보호색이라든지 주변 동물의 색을 통해서 보색과 비슷한 색에 대한 개념을 심어 줄 수 있다. 또한 관찰력, 색 감각, 집중력 등을 길러 줄 수 있다.

♣ 보호색 놀이

곤충의 보호색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신이 곤충이나 벌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서 자신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아가 보게 한다. 이때 옷색깔과 비슷한 곳을 찾아 숨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보호색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 몇가지 소리일까?

숲이나 냇가, 도심 한가운데 어느곳에서든 할 수 있는 놀이이다. 한곳에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들어보자. 낙엽위나 돛자리위에 누워도 좋다. 어떤 소리가 들리나? 잘 들어보자. 주변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 남에 대한 배려,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시끌벅적한 도심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일수록,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것들에도 다양한 생활이 있고 그 속에도 삶이 있다는 생명에 대한 존중감, 청음력, 호기심, 집중력 등을 키워줄 수 있다.

매미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자 이 름 사는 곳 출현시기 울음소리

털매미 평지,7백m이하 나무낮은곳 6초~9초 찌 ~ ~ ~ 또는 쓰 ~ ~ (끝낼 때) 찌, 찌, 찌

뉘털매미 주로 평지(가끔 산) 8말~10말 씨-익 씨-익 썩썩썩썩 (연속음이 아닌 단절음)
 참깡매미 높은곳(적음) 7초~9초 뜨르르르, 또는 기~~(연속음)
 깡깡매미 깡깡매미와 모양과 색깔의 차이
 말 매 미 평지, 가로수 (제주도 많다) 6말~9하 차르르...(폭포수 같은 소리)
 유지매미 울창한 숲속 (평지, 산지) 7초~9중 (저녁활발) 지글지글 또는 딸랑딸랑 (쉽)딱따
 그르르르
 참 매 미 평지(주), 산지 7초~9중 ㄲ~ 또는 지~(시작) 밍밍밍밍밍 미.... ALA
 애 매 미 광범위(평~산) 시내(밤중에도) 7초~9말 (시작) 씨우 주주주주 (제시) 쓰와 오 쓰
 주주주 (중간) 히히히쓰히히히 ~
 쓰름매미 평지 (산지에 없다) 6말~9중 일몰직전과 후에 많이 움 쓰름, 쓰름, 쓰름
 소요산매미 시골평지, 산지 도시에 없다 5하~8초 지잉맹, 지잉맹 지잉맹..... (끝) 타카타카
 타카....
 세모배매미 깊은산지 5하~7말 울음소리 확인되지 않음
 호좀매미 산능선, 정상 7하~10중 칫칫칫칫, 짹칫칫 칫크치크치크
 기시다 좀매미 호좀매미와 형태가 유사
 풀 매 미 산속 (개체수적다) 5말~8초 칫칫칫칫.....치깃칫칫칫..... (채각채각채각.....)
 고려풀매미 시골, 낮은산 (개체수 적음) 5말~8 칫칫칫칫.... (풀매미보다 금속성을 띠)

♣ **질경이 풀싸움**

질경이는 잘 끊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질경이 줄기의 섬유질 때문인데 이를
 이용해서 풀싸움을 해보자. 질경이 줄기를 따자. 이때 어느 것이 질긴 것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어느 것이 잘 끊어지지 않고 질긴 것인지 말해 주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찾아 보도록 해보자.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관찰력도 길러주고, 새
 로 돌아난 순과 이전에 돌아나서 섬유질이 강하게 영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준
 다. 그리고 색도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질경이 뿐만아니라 다른 다양한
 풀들을 이용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비교 도표를 만들어 보면 아이들
 에게 비교하는 개념을 발달시킬수 있다.

< 이용하는 자연물에 따른 분류 >

♣ **풀을 이용한 놀이**

풀싸움, 결초보은, 풀잎이나 나뭇잎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풀잎이나 나뭇잎 따
 서 모으기, 감잎차 만들기, 나뭇잎의 특징을 살려 자세히 그림 그리기, 나뭇잎배 띄우기, 가
 위바위보로 아카시아 잎따기, 풀잎 피리 불기(독새풀, 사철나무, 분꽃, 조릿대, 민들레 줄기),
 잎 멀리 날리기, 강아지 풀이나 수크령으로 꼬리 나오기, 강아지 풀로 간지럼 태우기, 옥수
 수 잎등을 이용해서 각시 만들기, 여치나 매미집 짓기, 풀피리 불기, 솔잎이나 팽이밥, 며느
 리 밀씻개(싱건지) 등 풀잎 따서 씹어보기, 낙엽이나 풀속에 몸을 묻고 하늘보기, 가장 큰잎
 과 가장 작은 잎 찾기, 바랭이로 양산 만들기, 쇠비름 줄기로 뼈에로 만들기, 갈퀴덩쿨로 혼

장 만들기, 토끼풀로 훈장 만들기, 꼭두서니로 훈장 만들기, 균형놀이, 풀 비행기 만들기, 뽕 소리내기(분꽃 잎, 콩잎, 도라지 꽃 봉오리, 등)

♣ 나무를 이용한 놀이

생강나무, 산초 나무, 초피나무 잎이나 가지를 꺾어서 냄새 맡아 보기, 피리 불기(개나리, 버들, 보리), 나무의 고동소리 듣기, 나뭇 가지로 새총 만들기, 움집 만들기, 나무 타기, 나의 나무 찾기,

♣ 꽃을 이용한 놀이

꿀꽃 따먹기, 애기 똥풀로 매니큐어 칠하기, 감꽃으로 목걸이 만들기, 접시꽃으로 인디언 놀이, 접시꽃을 얼굴에 붙이고 먼저 떨어지게 하는 놀이, 민들레나 토끼풀로 꽃시계, 팔찌, 목걸이, 반지 만들기, 진달래 꽃으로 화전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분꽃으로 피리 불기

♣ 열매나 씨앗, 꿀을 이용한 놀이

민들레 홀씨 붙어서 날리기. 꿀꽃, 사루비아 꽃속의 꿀 따먹기, 밤 따기, 솔방울 싸움, 앵두 먹고 씨 멀리 뱉기

♣ 넝쿨을 이용한 놀이

넝쿨 줄기로 파마하기(아카시아, 호박), 칙 넝쿨로 왕관 만들기, 청미래 넝쿨로 팔찌 만들기, 칙 넝쿨을 이용한 그네타기, 다래, 머루, 으름, 산딸기, 오디 따먹기, 호박 넝쿨로 귀걸이 목걸이 만들기

♣ 가시를 이용한 놀이

가시 코뿔소 놀이, 가시를 얼굴에 붙이고 누가 오랫동안 안 떨어뜨리나 시험하기,

♣ 돌맹이를 이용한 놀이

돌맹이로 탑 쌓기, 돌맹이의 특징 살려 모양 만들기, 돌맹이의 결정 크기 관찰하고 비교하기, 자갈돌 퍼즐, 돌맹이에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모양의 돌 모으기, 징검다리 놀이, 공기 돌 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 모래나 흙을 이용한 놀이

모래에 물들여서 그림 그리기, 흙 관찰하기, 낙엽 밑의 흙 관찰하기, 땅 파보기, 땅 그림 그리기, 땅 따먹기, 흙 뺏으며 깃발 쓰러뜨리지 않기, 모래산 만들기, 두껍아 두껍아

♣ 지형을 이용한 놀이

산 미끄럼 타기, 전쟁놀이, 눈썰매 타기

♣ 물속에서 하는 놀이

물싸움, 징검다리 놀이, 댐 만들기, 물 수제비 뜨기,

♣ 새, 곤충, 벌레, 물속 동물을 이용한 놀이

곤충, 벌레 잡아서 시험하기, 올챙이, 물방개, 소금쟁이, 장구애비 관찰하기, 반딧불 잡기(형

솔지공), 가재, 엽새우, 달팽이 잡기, 개구리 잡기, 매미 소리 듣고 구별해 보기, 귀뚜라미 소리 듣기, 여치 소리 듣고 따라 해보기, 딱따구리, 박새, 참새등 새 소리 듣기,

< 자연물을 이용한 활동에 따른 분류 >

♣ 먹어 보기

솔잎이나 꿩이밥, 머느리 밀싹개(싱건지) 등 풀잎 따서 씹어보기, 꿀꽃 따먹기, 사루비아 꽃속의 꿀 따먹기, 밤 따기, 다래, 머루, 으름, 산딸기, 오디 따먹기,

♣ 관찰하기

낙엽이나 풀속에 몸을 묻고 하늘보기, 흙 관찰하기, 낙엽 밑의 흙 관찰하기, 올챙이, 물방개, 소금쟁이, 장구애비 관찰하기, 반딧불 잡기(형설지공), 가재, 엽새우, 달팽이 잡기, 개구리 잡기, 가장 큰잎과 가장 작은 잎 찾기, 보호색 놀이, 몇가지 색깔까?, 몇가지 소리일까?

♣ 작품 만들기

풀잎이나 나뭇잎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기, 감잎차 만들기, 나뭇잎의 특징을 살려 자세히 그림 그리기, 나뭇잎배 띄우기, 풀잎 피리 불기, 옥수수 잎등을 이용해서 각시 만들기, 여치나 매미집 짓기, 풀피리 불기, 피리 불기(개나리, 버들, 보리), 나뭇 가지로 새총 만들기, 움집 만들기, 감꽃으로 목걸이 만들기, 접시꽃으로 인디언 놀이, 칙 녀쿨로 왕관 만들기, 청미래 녀쿨로 팔찌 만들기, 칙 녀쿨을 이용한 그네타기, 가시 코뿔소 놀이, 돌맹이로 탐 쌍기, 돌맹이의 특징 살려 모양 만들기, 돌맹이에 그림 그리기, 모래에 물들여서 그림 그리기, 땅 그림 그리기, 모래산 만들기, 댐 만들기, 물 수제비 뜨기, 두껍아 두껍아, 바랭이로 양산 만들기, 갈퀴덩쿨로 훈장 만들기, 토끼풀로 훈장 만들기, 꼭두서니로 훈장 만들기, 풀 비행기 만들기,

♣ 느끼기

강아지 풀이나 수크령으로 꼬리 나오기, 강아지 풀로 간지럼 태우기, 낙엽이나 풀속에 몸을 묻고 하늘 보기, 생강나무, 산초 나무, 초피나무 잎이나 가지를 꺾어서 냄새 맡아 보기, 나무 타기, 나의 나무 찾기, 땅 파보기, 산 미끄럼 타기, 쇠비름 줄기로 뼈에로 만들기, 뽕 소리내기(분꽃 잎, 콩잎, 도라지 꽃 봉오리, 등)

♣ 눈 가리기

나의 나무 찾기, 눈가리개 애벌레, 눈가리고 걷기

♣ 소꿉놀이

애기 똥풀로 매니큐어 칠하기, 녀쿨 줄기로 파마하기(아카시아, 호박), 호박 녀쿨로 귀걸이 목걸이 만들기

♣ 듣기

나무의 고동소리 듣기, 개구리 소리 듣고 따라해 보기, 매미 소리 듣고 구별해 보기, 귀뚜라미 소리 듣기, 여치 소리 듣고 따라 해보기, 딱따구리, 박새, 참새등 새 소리 듣기,

♣ 모아서 비교하기

여러 가지 풀잎이나 나뭇잎 따서 모으기, 돌맹이의 결정 크기 관찰하고 비교하기, 여러 가지 모양의 돌 모으기,

♣ 경쟁하기

풀싸움, 걸초보은, 가위바위보로 아카시아 잎따기, 잎 멀리 날리기, 민들레 홀씨 붙어서 날리기, 솔방울 싸움, 앵두 먹고 씨 멀리 뱉기, 가시를 얼굴에 붙이고 누가 오랫동안 안 떨어뜨리나 시합하기, 자갈돌 퍼즐, 징검다리 놀이, 공기돌 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땅 따먹기, 흙 뺏으며 깃발 쓰러뜨리지 않기, 전쟁놀이, 물싸움, 징검다리 놀이, 곤충, 벌레 잡아서 시합하기, 균형놀이,

<< 계절에 따른 활동 분류 >>

♣ 봄

풀잎이나 나뭇잎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풀잎이나 나뭇잎 따서 모으기, 봄눈, 새순의 특징을 살려 자세히 그림 그리기, 가위바위보로 아카시아 잎따기, 솔잎이나 머느리 밀싯개(싱건지) 등 풀잎 따서 씹어보기, 낙엽이나 풀속에 몸을 묻고 하늘보기, 생강나무, 산초 나무, 초피나무 잎이나 가지를 꺾어서 냄새 맡아 보기, 피리 불기(개나리, 버들, 보리), 나무의 고동소리 듣기, 나뭇 가지로 새총 만들기, 움집 만들기, 나무 타기, 나의 나무 찾기, 애기 똥풀로 매니큐어 칠하기, 감꽃으로 목걸이 만들기, 민들레나 토끼풀로 꽃시계, 팔찌, 목걸이, 반지 만들기, 진달래 꽃으로 화전 만들기, 민들레 홀씨 붙어서 날리기, 앵두 먹고 씨 멀리 뱉기, 솔방울 싸움, 가시 코빨소 놀이, 가시를 얼굴에 붙이고 누가 오랫동안 안 떨어뜨리나 시합하기, 돌맹이로 탐 쌍기, 돌맹이의 특징 살려 모양 만들기, 돌맹이의 결정 크기 관찰하고 비교하기, 자갈돌 퍼즐, 돌맹이에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모양의 돌 모으기, 징검다리 놀이, 공기돌 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모래에 물들여서 그림그리기, 흙 관찰하기, 낙엽 밑의 흙 관찰하기, 땅 파보기, 땅 그림 그리기, 땅 따먹기, 흙 뺏으며 깃발 쓰러뜨리지 않기, 모래산 만들기, 산미끄럼 타기, 전쟁놀이, 물 수제비 뜨기, 징검다리 놀이, 댜 만들기, 곤충, 벌레 잡아서 시합하기, 올챙이, 물방개, 소금쟁이, 장구애비 관찰하기, 반딧불 잡기(형설지공), 가재, 엽새우, 달팽이 잡기, 개구리 잡기, 딱따구리, 박새, 참새등 새 소리 듣기, 두껍아 두껍아, 가장 큰잎과 가장 작은 잎 찾기, 보호색 놀이, 몇가지 색깔까?, 몇가지 소리일까?, 균형놀이,

♣ 여름

풀싸움, 걸초보은, 풀잎이나 나뭇잎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풀잎이나 나뭇잎 따서 모으기, 나뭇잎의 특징을 살려 자세히 그림 그리기, 나뭇잎배 띄우기, 가위바위보로 아카시아 잎따기, 풀잎 피리 불기, 잎 멀리 날리기, 강아지 풀이나 수크령으로 꼬리 나오기, 강아지 풀로 간지럼 태우기, 옥수수 잎등을 이용해서 각시 만들기, 여치나 매미집 짓기, 풀피리 불기, 솔잎이나 머느리 밀싯개(싱건지) 등 풀잎 따서 씹어보기, 낙엽이나 풀속에 몸을 묻고 하늘보기, 생강나무, 산초 나무, 초피나무 잎이나 가지를 꺾어서 냄새 맡아 보기, 나무의 고동소리 듣기, 나뭇 가지로 새총 만들기, 움집 만들기, 나무 타기, 나의 나무 찾기, 꿀꽃 따먹기, 애기 똥풀로 매니큐어 칠하기, 접시꽃으로 인디언 놀이, 접시꽃을 얼굴에 붙이고 먼저 떨어지게 하는 놀이, 민들레나 토끼풀로 꽃시계, 팔찌, 목걸이, 반지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꿀꽃, 사루비아 꽃속의 꿀 따먹기, 솔방울 싸움, 넝쿨 줄기로 파마하기(아카시아, 호박) 쫄 넝쿨로 왕관 만들기, 청미래 넝쿨로 팔찌 만들기, 쫄 넝쿨을 이용한 그네타기, 다래, 머루, 으름, 산딸기, 오디 따먹기, 가시 코빨소 놀이, 가시를 얼굴에 붙이고 누가 오랫동안 안 떨어뜨리나 시합하기, 돌맹이로 탐 쌍기, 돌맹이의 특징 살려 모양 만들기, 돌맹이의 결정 크기 관찰하고 비교하기, 자갈돌 퍼즐, 돌맹이에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모양의 돌 모으기,

징검다리 놀이, 공기돌 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모래에 물들여서 그림그리기, 흙 관찰하기, 낙엽 밑의 흙 관찰하기, 땅 파보기, 땅 그림 그리기, 땅 따먹기, 흙 뺏으며 깃발 쓰러뜨리지 않기, 모래산 만들기, 산미끄럼 타기, 전쟁놀이, 물 수제비 뜨기, 징검다리 놀이, 댐 만들기, 물싸움, 곤충, 벌레 잡아서 시합하기, 물방개, 소금쟁이, 장구애비 관찰하기, 반딧불 잡기(형설지공), 가재, 엽새우, 달팽이 잡기, 개구리 잡기, 매미 소리 듣고 구별해 보기, 딱따구리, 박새, 참새등 새 소리 듣기, 두껍아 두껍아, 가장 큰잎과 가장 작은 잎 찾기, 바랭이로 양산 만들기, 쇠비름 줄기로 뼈에로 만들기, 보호색 놀이, 몇가지 색깔까?, 몇가지 소리일까?, 갈퀴덩쿨로 훈장 만들기, 토끼풀로 훈장 만들기, 꼭두서니로 훈장 만들기, 풀 비행기 만들기, 균형놀이, 뽕 소리내기(분꽃 잎, 콩잎, 도라지 꽃 봉오리, 등)

♣ 가을

풀싸움, 결초보은, 풀잎이나 나뭇잎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풀잎이나 나뭇잎 따서 모으기, 감잎차 만들기, 나뭇잎의 특징을 살려 자세히 그림 그리기, 나뭇잎배 띄우기, 잎 멀리 날리기, 여치나 매미집 짓기, 낙엽이나 풀속에 몸을 묻고 하늘보기, 나무의 고동소리 듣기, 나뭇 가지로 새총 만들기, 움집 만들기, 나무 타기, 나의 나무 찾기, 밤 따기, 솔방울 싸움, 가시 코뿔소 놀이, 가시를 얼굴에 붙이고 누가 오랫동안 안 떨어뜨리나 시합하기, 돌맹이로 탑 쌓기, 돌맹이의 특징 살려 모양 만들기, 돌맹이의 결정 크기 관찰하고 비교하기, 자갈돌 퍼즐, 돌맹이에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모양의 돌 모으기, 징검다리 놀이, 공기돌 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모래에 물들여서 그림그리기, 흙 관찰하기, 낙엽 밑의 흙 관찰하기, 땅 파보기, 땅 그림 그리기, 땅 따먹기, 흙 뺏으며 깃발 쓰러뜨리지 않기, 모래산 만들기, 산미끄럼 타기, 전쟁놀이, 물 수제비 뜨기, 징검다리 놀이, 댐 만들기, 곤충, 벌레 잡아서 시합하기, 물방개, 소금쟁이, 장구애비 관찰하기, 반딧불 잡기(형설지공), 가재, 엽새우, 달팽이 잡기, 개구리 잡기, 딱따구리, 박새, 참새등 새 소리 듣기, 두껍아 두껍아, 가장 큰잎과 가장 작은 잎 찾기, 보호색 놀이, 몇가지 색깔까?, 몇가지 소리일까?, 균형놀이

♣ 겨울

풀잎이나 나뭇잎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풀잎이나 나뭇잎(낙엽) 따서 모으기, 나뭇잎의 특징을 살려 자세히 그림 그리기, 낙엽이나 눈속에 몸을 묻고 하늘보기, 생강나무, 산초 나무, 초피나무 잎이나 가지를 꺾어서 냄새 맡아 보기, 나무의 고동소리 듣기, 나뭇 가지로 새총 만들기, 움집 만들기, 나무 타기, 나의 나무 찾기, 솔방울 싸움, 가시 코뿔소 놀이, 가시를 얼굴에 붙이고 누가 오랫동안 안 떨어뜨리나 시합하기, 돌맹이로 탑 쌓기, 돌맹이의 특징 살려 모양 만들기, 돌맹이의 결정 크기 관찰하고 비교하기, 자갈돌 퍼즐, 돌맹이에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모양의 돌 모으기, 징검다리 놀이, 공기돌 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모래에 물들여서 그림그리기, 흙 관찰하기, 낙엽 밑의 흙 관찰하기, 땅 파보기, 땅 그림 그리기, 땅 따먹기, 흙 뺏으며 깃발 쓰러뜨리지 않기, 모래산 만들기, 산미끄럼 타기, 전쟁놀이, 물 수제비 뜨기, 징검다리 놀이, 귀뚜라미 소리 듣기, 여치 소리 듣고 따라 해보기, 딱따구리, 박새, 참새등 새 소리 듣기, 보호색 놀이, 몇가지 색깔까?, 몇가지 소리일까?, 균형놀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 친화적인 노래 놀이"를 널리 보급시키고 생활 주변에서 친환경적인 놀이들을 계속 찾아가는 작은 시작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자유 놀이

♣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아래의 그림에서 한 아이는 만들기에 참가하지 않고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지요. 공동육아도 통합적 관점(놀이 교육, 생활 교육의 통합적 관념)에서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는 의무가 아닙니다. 참가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요.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아이들의 `자유놀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동생이나 형 누나들방의 프로그램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동생들 방에 가 동생들과 놀기도 하고 마당에 나가 놀기도 하지요.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지 않는 자유로서의 `자유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공동육아는 확신하는 바가 있지요. 자기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미시적 거시적인 교육적 효과이전의 근원적인 인간 존재의 생존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자유놀이: 방방이

방방이는 아이들이 즐겨하는 자유놀이입니다.

♣ 자유놀이: 소꿉놀이

집을 짓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공동육아 아이들의 자유놀이를 관찰해 보면 아이들이 성역할 고정 관념을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애들만으로도 소꿉놀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엄마, 아빠, 애기등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 공동육아의 남자 선생님들

몇군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에는 남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다 하시면서 남자 아이들의 씨름 상대도 되어주시고 칩덩쿨 타기같은 보다 더 활동적이고 씩씩한 놀이도 좀 더 잘 유도하는 남자 선생님의 인기는 대단하죠

♣ 마당놀이

공동 육아 아이들에게 흙과 모래는 자기집 안방만큼 편안한 터이다

과천 튼튼 어린이집의 넓은 마당은 눈이 오면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신나는 놀이마당이 된다

♣ 실내 자유 놀이

어린이집에서는 벽에 흰 종이를 붙여 아이들의 그림판, 낙서판으로 이용한다.

나무 목걸이 만들기 - 코딱지 흠피 퍼움 - [sinchasun, 2002-06-07,32]
코딱지

Homepage

<http://ecomadang.com>

Subject

나무목걸이 만들기... 참고하세요..

준비물:쪽동백나무, 벗나무, 참회나무 어슷썰기, 구멍 뚫는 드릴, 샤프(300방), 색실끈, 전통매
듭, 유성펜(네임펜), 색연필, 낚싯줄.

첫째-어슷썰기한 나무를 샤프로 문지른다.

나무 앞 뒤 나이테가 잘 나오도록 매끈하게 문지른다.

둘째-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뚫는다.

셋째-네임펜으로 앞면과 뒷면에꽃, 열매, 새, 곤충 등 그리고 싶은 것을 정성껏 그린다.

색연필로 주변을 색칠해도 좋음.

넷째-구멍에 색실 끈을 넣는다.

다섯째-색실 끈에 전통매듭을 낚시줄을 이용하여 넣는다.

여섯째-전통끈매기로 연결하여 목에 건다.

주의 사항.

☞ 나무는 잘 갈라지지 않고..바탕이 흰색인 것을 사용하거나..무늬가 있는 것을 이용한다.

☞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갈라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사포로 문지를 때 손가락을 문질러 다치지 않도록 한다.

☞ 나무가 마른 것을 사용하여야 네임펜이 번지지 않고, 색연필로 색칠하기에 좋다.

☞ 전통매듭